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버클리 한인 여학생 찰스강서 사체로 발견돼

피아노 전공의 평소 밝고 사교적인 성격
서픽 카운티 지검, 현재 사망원인 조사 중
주변 친구들 사체로 발견된 후 실종 알아



지난 17일 오전 찰스 강에서 사체로 발견된 수잔 배 씨(가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장명
술 기자 = 버클리에 재학 중인 한인 여학생
수잔 배 씨(가명, 33세)가 지난 17일 금요일
찰스 강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제이크 와크(Jake Wark) 서픽 카운티 지
검 대변인은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배
씨가 오전 7시께 찰스 강 매스 애비뉴 브리
지 아래 지점에서 MIT 조정 선수들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히고 “주 경찰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체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와크 대변인은 “검시 증으로 현재까지
다른 타살 흔적이 없지만 현재 사망원인을
계속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독실한 기독
교 신자였던 배 씨에게서는 알코올이나 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배 씨의 버클리 동료 중 한 명인 막심 크리
크틴(Maksim Krykhtin)씨는 버클리 대학

내 중고 장터에 토요일 배 씨가 실종됐다고
글을 올렸으며 월요일인 21일에는 영면을 기
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보스톤코리아는 배 씨의 사망 전 정황에
대해 크리크틴 씨에게 질문했지만 아직 답
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버클리 대학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피
아노를 전공하는 수잔 배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정

말 애통하다”고 애도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조 오 씨(Joe Oh, 28)는 수잔 배 씨의 비보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 씨는 “수
잔 누나는 밝은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을 보
살피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을 해주는 누나였다”며 그녀의 죽음을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불신감을 표했다.

▶▶2면으로 계속

보스톤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보스톤 최고 한식당〉 선정 이벤트

한국 왕복항공권, 애플워치 등 경품 푸짐



(보스톤 = 보스톤코
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코리아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독
자들이 선정한 보스톤 최
고의 한식당’ 이벤트를 실시한다.

응모자는 지면(27면) 또는 웹사이트(bostonko-
rea.com)에서 찾을 수 있는 이벤트 용지에 나열된
매사추세츠 주 한식당 총 45군데 중 베스트 두 곳을
선정해 보스톤코리아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벤트에 참가한 독자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에
게는 한국 왕복 항공권을, 2등(1명)에게는 애플워치
를(Apple Watch) 증정한다. 3등(10명)에게는 보스
톤 최고의 한식당으로 선정된 업체의 \$25 상품권이
주어진다. (단, 내부 직원은 1,2등 추첨에서는 제외
된다.)

추첨의 형평성을 위해 접수는 우편으로만 받으며
응모 마감은 9월 18일(18일자 우편소인)이다. 접수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할인항공권 전문

From **\$970**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비수기 특가

ONLY 1 STOP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여행일정, 이용항공사, 실시간 예약상황 등에 따라 항공권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e N.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Dir: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e@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수잔 배 씨가 마지막으로 이용한 페이스북 페이지. 2월이 마지막 업데이트였다

지방검찰청 자살 추정에 안타까움 더해

▶▶1면에 이어서

조 씨가 마지막으로 배 씨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6월 말이었으며 배 씨가 페이스북을 업데이트 한 것은 올해 2월이 마지막이었다.

버클리 뮤직 네트워크 웹사이트의 소개에 따르면 배 씨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국제 컨서버토리 음악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다. 2001년에는 시드니의 리스트

소사이어티 페스티벌에서 객원 피아니스트로 연주했다. 배 씨는 많은 국제 피아노 경연대회에 입상기도 했다. 배 씨는 2005년 미국으로 이민했으며 이후 오렌지 카운티 소재 뮤직 아카데미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다. 그녀는 MGM 영화 "폐임"에서 출연했고 TV쇼 "가십걸"에도 출연했으며 TV 쇼 "글리"에서는 첼리스트로 출연기도 한 재원이었다.

editor@bostonkorea.com



무작위 추첨으로 비행기표 등 12명에 경품 형평성 위해 반드시 우편접수해야

▶▶1면에 이어서

용지는 지면에서 내려오거나 웹사이트 해당 기사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양식에는 이벤트 참가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보스톤 최고의 한식당 두 곳을 선정, 순위를 매겨 보스톤코리아 사무실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1인 1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중복

투표는 불가하다. 추첨상품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스톤코리아 관계자는 "10년 동안 한인 여러분만 보고 달려왔다. 미주의 한인신문으로 한글 전도사 역할을 해온 저희가 독자들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한식 전도사를 선정하고자 한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한식당에는 '보스톤코리아 독자 선정 최

고의 한식당 증명서'를 증명할 예정이다.

한편, 보스톤코리아는 1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10월 10일 개최할 예정으로 기념사업 후원업체를 함께 모집하고 있다. 후원에 관심있는 업체는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펴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암살' 8월 7일 보스톤 개봉확정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라인업
10명 무료티켓 증정 댓글이벤트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올 여름 최고의 화제작으로 관심 받고 있는 영화 '암살' 이 오는 8월 7일 금요일 보스톤 소재 Regal Cinemas Fenway 13에서 개봉한다.

이에 보스톤코리아는 독자들을 위해 무료티켓 증정 이벤트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 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기사에 댓글로 '암살' 에 출연하는 배우 중 가장 좋아하는 1인과 그 이유를 적으면 된다.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은 참여한 댓글 중 가장 참신하고 재미있는 댓글 10개를 선정해 무료 티켓 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총 10명의 독자에게 증정되는 무료 티켓 교환권은 8월 10일 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상영관 내 고객 서비스 창구(Customer Service Booth)에서 관람 티켓 2장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벤트 마감은 7월 29일 수요일이다.

한편, '암살' 첫 상영일인 7일 금요일, 오후 5시 이후 첫 상영시간에 오

는 관객(선착순 50명)에게 무료 '암살' 부채를 증정할 예정이다.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이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들의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암살' 은 한국에서 지난 22일 개봉하며 올해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 47만을 기록했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 '도둑들' 등의 흥행작을 탄생시킨 최동훈 감독이 '암살' 의 메가폰을 잡았으며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등 연기와 배우들의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여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

인다.

'암살' 에 이어 보스톤 개봉을 앞두고 있는 '협녀: 칼의 기억' 은 오는 8월 28일 같은 상영관에서 상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협녀: 칼의 기억' 은 이병헌, 전도연, 김고은 주연으로 고려 말, 왕을 꿈꿨던 한 남자와 18년 후 그를 겨누는 두 개의 칼, 뜻이 달랐던 세 검객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담은 영화다.

개봉일정
일시: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장소: 리걸 시네마 펜웨이 13(201 Brookline Ave, Boston, MA 02215)
dyoo9146@bostonkorea.com



뉴햄프셔 한인회가 주최하는 한국전 보은행사가 오는 24일 뉴햄프셔 국군묘지에서 개최된다

뉴햄프셔 한인회, 한국전 보은행사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회장 박선우)가 주최하는 한국전 보은행사가 오는 24일 금요일 뉴햄프셔 보스카웨에 위치한 국군묘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80여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가족을 포함한 지인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석한 참전용사들에게는 기념핀과 선물이 증정되며 이날 본 행사 이후에는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한국전 보은행사는) 뉴햄프셔 한인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의미있고 보람된 행사 가운데 하나" 라며 "특히 80대 중반을 넘기는 그분들을 내년에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사의 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 고 전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뉴햄프셔 주에서만 2만 8천명의 군인들이 참전하였고 그 중 135명은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며 “그분들의 희생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연례 보은행사'만으로는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는 소감을 전했다.

행사 참석 문의나 뉴햄프셔 한국전 보은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 (603-767-1356)에게 연락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뉴햄프셔 국군묘지(110 Daniel Webster Hwy, Boscawen, NH 03303)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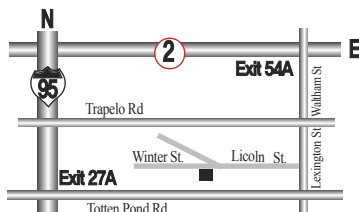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보스톤 소재 한국학교들 무더기 수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서
한순용 회장 국립국어원 원장 표창
김현정 교장 교육부 장관 표창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33차 학술대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뉴저지 소재 티넥 매리엇 호텔에서 개최됐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최미영)가 주최한 제 33회 학술대회에서 보스톤을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교사 및 학생들이 다양한 부문의 상을 휩쓸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6일부터 3일간 뉴저지 소재 티넥 매리엇(Teaneck Marriott)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한순용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장이 국립국어원 원장 표창장을, 김현정 보스톤전주교 한국학교 교장이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개교 40주년 기념 표창장을 받았으며 장인숙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교장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주민정, 이현경 교사가 각각 2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15년 장기 근속상 수상자로는 이현경 성요한 한국학교 교장이 있다.

이번 아니라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도 자랑스러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2015년 19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양대연 학생과 밀알 한국학교의 김채연 학생이 총회장상을 수상했으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최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발명가'라는 제목으로 총영사상을 수상한 우스터 한국학교의 김모레 학생이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하형록 Tim Haahs & Association 회장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박기태 반크 단장이 초대됐다.

하형록 회장은 창의적인 교육법에 관해, 박기태 단장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강연했다. 이외에도 여러 강사들이 참석해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어 교수법 등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뉴잉글랜드 협의회 관계자는 "월 새 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도 미 전역에서 모인 수많은 교사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강연을 듣고 필기하는 등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세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 열정이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그대로 심어져서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미노인회, 국제선 초청 나들이 다녀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미노인회(회장 유영심)가 국제선교회(이하 국제선) 씨코스 지부의 초청으로 뉴캐슬 비치로 바닷가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60명의 노인회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한 회원들은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뉴캐슬 비치에 도착하기에 앞서 뉴햄프셔 소재 그린랜드 교회(담임목사 한상신)로 향했으며 교회에서 제공한 푸짐한 점심을 즐겼다. 교회에서 음악이 어우러진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진 회원들은 비가 그치자 뉴캐슬 비치로 향했으며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으로 이날 나들이 행사를 마쳤다.

유영심 한미노인회 회장은 "점심을 제공해주신 그린랜드 교회 관계자와 나들이 행사를 위해 교통편(버스)을 제공해주신 김경원 한인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환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환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한국학교 40주년 재외동포 이사장 표창 - 남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5대 교장 인터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 남일)가 지난 18일 뉴저지에서 개최된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40주년 표창을 수상했다.

1975년 열 명 남짓한 학생으로 시작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015년 5백 명에 달하는 재학생의 뿌리교육을 담당하는 뉴잉글랜드 대표적인 한국학교로 우뚝 서 있다.

그러나 이민의 땅에서 한국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순탄한 일만은 아니었다. 개교 이래 학교 건물을 다섯 번이나 옮겨야 했고 이에 대해 백린 2대 교장은 “높은 뜻과 열정에 반해 열악했던 재정과 녹녹치 않은 현실이 늘 상충했었음”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23일, 남일 교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때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준 많은 분들의 수고와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음은 남일 교장의 일문일답이다.

Q. 개교 40주년을 맞은 소감은 어떠한가

A. 1975년 뉴튼 센터에 위치한 폼로이 하우스(Pomroy House)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이했다. 개교 이래 학교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많은 분들의 수고와 격려, 후원이 큰 힘이 되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오늘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다. 지난 40년 동안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를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Q. 교장직은 몇 년도부터 역임하고 있는가

A. 1대 안창수 교장, 2대 백린 교장, 3대 김영집 교장, 4대 황성미 교장 선생님께서 이어 5대 교장으로 지난 1999년부터 교장직을 맡고 있다.

Q. 교장직을 맡으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A. 감사하게도 가슴 뿌듯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 어떤 걸 얘기해야 하나 망설여진다. 2005년 6월 18일, 개교 30주년을 맞아 전교생이 ‘도산 안창호 선생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대하드라마 수준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와 개교 40주년을 맞아 역사박물관을 개관했을 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흐뭇했던 순간으로는 부모님 손을 꼭 붙들고 입학식에 참석했던 세 살배기 어린 아이가 졸업식에서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졸업생 답사를 전하는 순간인 것 같다. (나를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가장 흐뭇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Q. 봉사해주시는 교사들에게 한 마디 하자면

A. 한국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한국학교가 존재하고 한인 2세들을 위한 뿌리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다. 한글을 가르치고 전하며 지켜나가는 교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Q. 한국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영어 하나만 잘해도 되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싫던 좋은 무한경쟁이란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한인 2세로서 한국어를 잘 한다는 것만으로도 무한경쟁 시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글을 늘 열심히 배우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 젊은이들과의 경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긍심



(좌) 남일 교장 (우) 초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건물인 뉴튼 폼로이 하우스에서 백린 2대 교장 내외

과 자신감을 잃지 않길 바란다.

Q. 앞으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A. 개교 40주년을 보내고 또 한 페이지의 역사를 쓸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를 꼽으라면 교사 양성일 것이다. 현재 1.5세, 2세 교사의 양성하는 프로젝트가 수립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한글, 창조적인 과학유산과 문화, 아름다운 전통 등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

고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지난 40년 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게 될 많은 학생들이 자랑스런 한인 2세로서, 글로벌 시대 차세대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도하겠다.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엘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엘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한인여성 경 월슨 로터리 클럽 주지사로 취임

행복해지려면 주위 사람들 먼저 도와야
영어 한마디 못해도 절대 문제 없어
다음 세대 위해 리더훈련, 교육환경 발전
배고픔 시달린 아이들 없어질 때까지



로터리 클럽 디스트릭7890의 주지사 및 대표로 취임된 월슨 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1일 브리스톨 로터리 클럽 디스트릭7890의 주지사 및 대표로 한인여성인 경 월슨 씨가 취임했다.

로터리 주지사로서의 월슨 씨의 주임무는 리더를 발굴해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월슨 씨가 주지사로 취임한 로터리 클럽은 1905년도에 사업가들이 네트워킹 형성을 위해 설립했으며 안전 관리, 물 공급, 건강 관리, 위생 서비스, 교육, 커뮤니티 발전, 리더십, 장학금 등 소아마비 백신을 공급해주는 비영리 기관이다. 월슨 씨는 “특별히 소아마비 프로젝트로 매년 인도에 4천 만명 분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고 전했다.

월슨 씨는 도미 후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해 오면서 수많은 직위의 관리직을 거친 경력이 있다. 은행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월슨 씨는 활동적인 성격에 지역 봉사 기회를 꾸준히 찾던 중 로터리 클럽을 만나게 되었다. 로터리 클럽에 참여하기 원했던 월슨 씨는 출근 전 시간을 활용해 본인이 직접 로터리 클럽을 구성, 사회 봉사에 적극 참여했다. 월슨 씨는 로터리 클럽 안에서 회장, 회계 담당자, 이사, 여성위원장 등 많은 직위를 섬겨왔다.

40년전 부산을 떠나 혼자 미국으로 이민 온 월슨 씨는 “초기 로터리 클럽에 들어온 아시안은 나 혼자였고 여성 또한 나 뿐이었다. 하지만 영어 한마디를 못하는 나를 아무도 막지를 못했다” 며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용기를 내어 하

고 싶은 일을 꼭 정복하라” 고 격려했다. 월슨 씨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기회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꼭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고 조언하였고 “한인들끼리 뽕뽕 모여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 전했다.

월슨 씨는 “늘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와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며 “자기발전을 꾸준히 해온 결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월슨 씨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해질 수 있다” 는 말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월슨 씨의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리더 양육과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다. 아울러 월슨 씨는 ‘더 이상 배고픔에 굶주리지 않는 어린이들과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계획’ 을 강조하였다

jham@bostonkorea.com



올해 한인회 체육대회는 워터타운 아스널 공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작년 제69회 체육대회 참가자들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하는 모습

8.15 광복 70주년 기념 뉴잉글랜드 한인 체육대회

일상 어려움 고달픔 잊고 신나게 놀자
미국인과 함께하는 광복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한인회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15일 토요일 연례 행사인 뉴잉글랜드 한인체육대회 겸 야유회를 개최한다.

김경원 한인회장은 “이번 행사는 한인회에서 주관하고 보스톤 총영사관 및 각 한인 단체에서 협찬하는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최대행사” 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한인들과 광복 7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랐다. 이어서 김 회장은 “본 행사를 통해 보스톤 한인사회가 더욱 단합하고 하나되기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번 체육대회에 있어 김 회장은 “개인 및 단체의 참여가 가능해 다양한 순서에 참가해 자리를 빛내달라” 는 요청에 덧붙여 “이번 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각 한인 단체와 개인의 다양한 후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며 체육대회가 한인 전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김 회장은 “우리 만나서 손잡고 인사 하고 어울리자. 일상 어려움과 고달픔 잠시 잊고 신나게 하루 놀아보자” 고 다시 한번 부탁하였다.

한인회는 화합과 기쁨이 장이 될 이번 행사를 위해 모든 한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식, 상품 등을 준비했다.

체육대회는 8월 15일 오전부터 워터타운에 위치한 아스널 공원(Arsenal Park)에서 열리며 경기종목은 축구, 농구, 족구를 비롯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와 노래자랑을 비롯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다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계획되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순서 중에는 광복절 기념식도 진행될 예정이고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미국인들도 기념행사에 참여한다.

체육대회 참가신청은 8월 13일 목요일까지 한인회 사무실로 전화, 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체크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육대회 참가 자격은 없고 남녀제한 없이 가족 팀, 친구 팀, 한인 팀, 미국인 팀, 혼혈 팀, 유학생 팀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행사일정

일시: 8월 15일 오전 9시

장소: 아스널 공원, 485 Arsenal St. Wattertown, MA 02472

종목별 \$150, 4 종목 모두 참가시 \$500, 가족 및 개인(번외 경기) 참가비 없음.

참가신청 및 문의: 781-933-8822, haninhoebo@gmail.com

jham@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푸드트럭 창업, 이렇게 준비하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최근 가장 핫한 '창업 열풍' 과 누구나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이 만난 푸드트럭(Food Truck)은 성공적인 창업을 그리는 많은 사람들의 꿈의 도전이다. 특히 최근 유타 주의 한국 컵밥 푸드트럭이 한국 매체에 크게 보도됨에 따라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뉴욕에서 갓 대학을 졸업한 안 씨도 "트렌드를 따라" 푸드트럭 사업 런칭을 기획하고 있다. "주변에 여러 친구들이 푸드트럭에 도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친구도 있다" 는 안 씨는 졸업 후 다양한 창업 설명회와 푸드트럭 박람회를 돌아다니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하지만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자금 마련이다. 보스톤에서 푸드트럭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클로버 푸드 랩(Clover Food Lab)' 의 무어 대표에 의하면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최소 7만 달러에서 많게는 17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트럭 비용을 포함한 각종 음식 재료, 시 정부 허가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학생 꼬리표를 이제 막 떼 안 씨는 창업경쟁에 뛰어들 자금이 부족해 아직은 청사진만 그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시장조사를 위해 '플리마켓(Flea Market)' 에서 먼저 본인의 푸드트럭 아이템을 선보여 인기를 가능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끝까지 그의 '대박' 아이템은 비밀에 부쳤다.

푸드트럭 등록하기

2011년 6월, 보스톤 시가 푸드트럭 비즈니스 신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푸드트럭 창업의 문턱을 낮췄다. 그해 15개 트럭으로 시작한 푸드트럭은 2015년 4월 기준 81개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보스톤 시에 푸드트럭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통합 신청서인 '푸드트럭 신청서(Food Truck Application)' 를 연간 회비 \$500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허가서로는 ▶식품안전 허가서(Health Permit, \$100) ▶화기 허가서(Fire Permit, \$110) ▶사업 허가서(Business Certificate, \$50) ▶비즈니스 라이선스(Hawker and Peddler License, \$62) ▶트립블 GPS 장착 기기 \$299, 설치비 \$89, 스포린트 데이터 월 \$35

등이 있다.

비용 계산하기

클로버 푸드 랩의 무어 대표는 푸드트럭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 가이드인 '푸드트럭 101' 를 발표했다. '푸드트럭 101' 은 푸드트럭과 정리한 푸드트럭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푸드트럭(\$50,000~\$125,000)
- ▶라이선스 비용(\$1,500)
- ▶보험(\$2,500)
- ▶연료비(\$250)
- ▶직원 트레이닝(\$800)
- ▶렌트(7,500)
- ▶비품(\$1,200~6,000)
- ▶로고 제작 및 법적 사무 등 기타 비용(\$7,500~\$25,000)

이외에도 무어 대표는 음식 조리과 서빙에 걸리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최단 시간에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시마다 푸드트럭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가서나 GPS 장착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을 권장기도 했다.

푸드트럭 자리 선정하기

푸드트럭 대표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선정한 최고의 핫플레이스로는 백베이와 보스톤 메디컬 센터, 그린웨이 가 대표적이다. 이같은 인기만점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푸드트럭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자리를 선정하게 된다.

보스톤 시에서 지정한 푸드트럭 영업 장소

(Public Site)는 총 20곳으로 가장 경쟁률이 높은 1순위와 2,3순위로 나뉜다. 매년 1월 추첨과정을 통해 정해지는 1순위 장소로는 백베이, 보스톤 대학, 펜웨이, 차이나타운 등이 있으며 1일 사용료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가 각각 \$12.50, \$25, \$12.50이다.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2,3순위로는 찰스타운, 더들리 스퀘어, 도체스터 등이 있으며 1일 사용료는 2순위 \$8.25, \$16.50, \$8.25와 3순위 \$4.25, \$8.50, \$4.25로 비교적 저렴하다.

이외에도 그린웨이나 MBTA 역 등의 특별 장소(Special Site)에서 영업을 하려면 푸드트럭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서류를 보스톤 시 공공사업부(Public Works, Permitting Office, Boston City Hall Room 715)에 제출하면 된다.

푸드트럭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각종 서류는 보스톤 시 정부 홈페이지(cityofboston.gov/foodtrucks)에서 찾아볼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유학생들 사이에 인기인 우버 여전히 안전성 문제 존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새벽 2시, 브루클라인에 살고 있는 유학생 S씨는 모처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우버를 불렀다. 인근에서 도요타 PRIUS가 S씨가 기다리고 있는 위치로 오는 모습이 지도에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도착 시각까지는 3분이 소요된다고 알려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얼굴을 확인해 두었던 운전사의 차량이 3분이 조금 안 되어 S씨 앞에 섰다.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버(Uber)가 매사추세츠에서 본격적으로 운행된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한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자가용이 없는 유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택시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부를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난주 처음으로 우버를 이용해 보았다는 유학생 Y씨는 “택시라는 표시도 없는 일반 차가 와서 타라고 하니깐 웬지 불안했다” 며 여성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혼자 우버를 탄다는 게 망설여 진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버, 어떻게 이용할까?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베이스로 한 서비스이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 받아 회원 가입을 한 후부터 이용 가능하다. 회원 등록을 할 때 미리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입력해야 한다.

차량이 필요할 때는 간단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가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입력하면 되는데, 거리 뿐만 아니라 요청하는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우버 측에 따르면 일반 택시보다 많게는 40%-50%까지 저렴하다고 한다. 요청을 컨펌하기 전, 예상 최종 지불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요청을 컨펌하게 되면, 픽업 위치에 따라 주변의 우버택시 중 한대가 랜덤으로 선택되게 된다. 고객이 차량 및 운전자를 선택할 수는 없으나, 선택된 차량의 모델, 차량 번호 및 운전자 사진, 평점을 확인할 수는 있다. 참고로, 우버를 요청한지 5분이 지난 후 캔슬할 경우 캔슬수수료(10달러 선)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단, 운전자가 5분 이상 늦게 도착했을 경우에는 캔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금 결제는 미리 등록해놓은 신용카드로 자동 청구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팁 포함)



▶끊이지 않는 안전성의 문제

우버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기에 대한 20%의 수수료를 받는다. 기존 택시와 다른 점은 택시 면허 없이도 우버의 드라이버가 될 수 있고 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는 우버의 운영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안전성의 문제가 끊임 없는 거론되는 이유이다.

베이커 주정부가 지난 2월 라이드 셰어 서비스를 허가하는 법안을 제안한데 이어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 운전자가 직접 승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장점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보스턴 인근에서 우버 드라이버가 여성 승객을 구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안전성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월요일 주의회에서는 드라이버 선정 기준 및 범죄 경력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 할 것이라 밝혔다.

새롭게 제안 될 법안은, ‘라이드 셰어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 보험이 아닌 상업 자동차 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어야 하며, 운전자 고용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시 반드시 지문 조회도 함께 해야 한다’ 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 영업이다, 차량 공유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등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는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부합하는 서비스임은 분명한 듯 하다.

htj@bostonkorea.com

제 2회 GetKonnected 보스톤 소수민족 음식 페스티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소수민족 음식 페스티벌(Boston's Annual Ethnic Food Festival)이 오는 28일 화요일 하버사이드 인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보스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들의 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레스토랑 윈크앤 나드(Wink&Nod)안에 있는 아킨토(Atkinto)의주방장 패트릭 이네이지(Patrick Enage)가 함께 한다. 윈크&나드는 매 6개월마다 새로운 요리사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를 갖고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보스톤의 첨단 레스토랑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남아 요리를 자랑하는 아킨토는 현대와 고전을 아우르는 맛으로 필리핀 사람들의 극찬을 받고 있다.

보스톤 민족 음식 페스티벌의 다른 레스토랑으로는 제이크스 보스 BBQ(Jake's Boss BBQ), 도미니칸 음식전문 메렝구(Merengue), 타이 음식전문 몬티엔 보스톤(Montien Boston), 세네갈 음식전문 테랑가 보스톤(Teranga Boston) 등 많은 레스토랑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보스톤 다문화네트워크단체 겐트 커넥티드(Get Konnected)의 설립자 폴렛 필립은 “지난해 열린 제 1회 보스톤 소수민족 음식 페스티벌



에서 대성황을 거두었다” 며 “이를 계기로 매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덧붙여 필립은 “보스톤은 전형적인 미국 음식 뿐만 아닌 세계 각국의 음식이 모여 훨씬 다채로운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고 말했다.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겐트 커넥티드의 보스톤 소수민족 음식 페스티벌의 입장료는 15불이며 getkonnected.com/events에서 예매 할 수 있다.

대중교통으로 오는 경우 블루라인 아쿠아리움 역에 내려서 도보 2분 가량 안에 찾을 수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5:30PM - 8PM

장소: Harborside Inn Hotel(185 State St, Boston MA 02109)

jham@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1920년대 미부호 가문의 화려함, 뉴포트 맨션 투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1922년 미국의 뉴욕과 롱아일랜드를 배경으로 대공황 직전의 화려하지만 무너져 가는 아메리칸 드림을 그린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기억하는가? 이 이야기 속의 개츠비와 데이지가 금방이라도 뛰쳐나와 화려한 파티를 열 것만 같은 곳, 뉴포트의 맨션으로 떠나보자.

The Breakers

1890년대 후반부터 경제 대공황 직전 1920년대 말까지, 미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며 많은 부호 가문을 배출했다. 락펠러, 카네기 가문과 더불어 뉴욕 3대 부호로 꼽히는 철도왕 밴더빌트의 큰 손자, 코넬리우스 밴더빌트 2세의 여름 별장이 바로 뉴포트의 The Breakers이다. 밴더빌트 가문이 세계 역사상 10대 부호에 든다는 사실만으로도 별장의 화려함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보통 뉴포트의 여름 별장들은 5월에서 8월 정도까지 약 2-3개월 사용되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수십억이 넘는 규모의 화려한 파티를 최소한 2번

택으로 꼽히는 The Breakers에는 70개의 방이 있으며 그 중 33개가 일하는 사람의 공간으로 200여명 수준의 손님은 상주 인원만으로도 거뜬히 치러낼 수준이었다. 특히 손님 접대를 위한 다이닝 룸의 경우 금박을 입힌 청동 장식으로 짓는 등 그 화려함에 놀라게 된다. 실제 바닷물을 끌어와 목욕을 즐길 수 있는 대리석 욕조 또한 당시 그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짐작하게 한다.

Marble House

브레이크스 외에 다른 맨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마블 하우스를 추천한다. 브레이크스보다(1895년)보다 3년 먼저 지어진 마블 하우스는(1892년) 브레이크스 이전까지는 가장 호사스러운 여름 별장이었다. 브레이크스의 주인, 코넬리우스 밴더빌트 2세의 남동생인 윌리엄 키썸 밴더빌트가 자신의 아내 알바의 생일 선물로 지었다 한다. 아내의 생일에 맞춰 공사를 마쳐야 했으나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1층은 모두 유럽산 최고급 대리석으로 치장한 반면, 2층은 대리석 무늬로 칠했다. 방문 시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보길.



1974년 로버트 레드포드와 미아 패로가 주연한 “위대한 개츠비”가 촬영된 Rosecliff

내다가 모두 경매에 넘기고 집도 매각 처분한다. 이후 몇몇 주인을 거치다가 마지막 주인이 1971년에 기부했다 한다. 1974년 로버트 레드포드와 미아 패로가 주연한 “위대한 개츠비”가 이곳에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들의 후손들이 집을 팔거나 혹은 기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뉴포트 맨션 투어는 “The Preservation Society of Newport Country” (<http://www.newport-mansions.org/>)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티켓 옵션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5개의 맨션을 낱자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는 5 Mansion Tour 티켓을 (성인 32.99달러)추천한다. 단, Hunter house는 제외된다. 참고로 모든 맨션의 내부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오디오 가이드는 무료.



정도는 주최해야만 뉴포트 사교계에 속할 수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예쁜 모습으로 해변가에 모습을 드러내야 했으며 티타임이나 산책 등의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하루에 보통 옷을 7번 정도 갈아 입었다고 한다.

뉴포트에 있는 여름 별장들 중 가장 화려한 저



Rosecliff

1902년에 완성되었으며 첫 주인이었던 Tessie Oelrichs는 그녀의 아버지가 골드러쉬 때 은광을 발견하여 갑작스럽게 거부가 되었다. 집을 물려 받은 그녀의 아들은 몇 해 더 이곳에서 여름을 보



서 촬영되었고 1992년작 “True Lies” 에도 여기서 찍은 한 장면이 나온다.

맨션 투어 팁

이렇게 많은 가문들이 Gilded Age라 불리는 황금시대를 풍미했지만, 소득세가 생기면서부터



htj@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대학교들 자발적인 세금 납부 인색

세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기부 프로그램
하버드 44%, BC는 23% 납부
텡스는 완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보스톤 시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자발적인 기부에 상당히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스톤 시는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비영리단체에 세금과 비슷한 명목의 기부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대학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보스톤 인근에 위치한 대학들은 보스톤 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서 등이 시 재정으로 유지되고 있고,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등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교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일반 회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대학교를 비롯한 비영리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일반 회사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금은 덜 납부하는 셈이다.

보스톤 시는 이런 비영리단체에게

세금과 비슷하지만 세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기부금을 요청하는 파일럿 (PILOT, Payments In Lieu Of Taxes) 프로그램을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 회계연도 (2014년 7월 -



많은 대학교들이 보스톤 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에서 요청하는 자발적인 기부금은 납부를 꺼리고 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요청한 기부금은 1천 5백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 21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보스톤 시에서 기부금을 요청한 19개 대학 중에서 6개 대학만이 기부금을 모두 납부했다. 2개 대학은 기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11개 대학이 요청한 수준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했다.

PILOT 프로그램에 속한 대학교들 중에서 비영리단체의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대학교에 속하는 노스 이스턴 대학(Northeastern University)과 엠마누엘 대학(Emmanuel College)이 각각 보스톤 시의 요청에 13%의 기부금을 납부했다. 보스톤 칼리지(Boston College)는 23%, 하버드(Harvard)는 44%를 납부하여 학교 규모와 명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

다.

규모가 큰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텡스 대학(Tufts University)이 보스톤 시가 요청한 491,400 달러를 완납했다. 보스톤 시가 가장 많은 기부금을 요청한 대학은 보스톤 대학(Boston University)으로 7백만 달러 이상을 요구했으며, 보스톤 대학은 시 정부가 요청한 금액의 86%를 납부했다.

마틴 월시 행정부의 보니 맥길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보스톤 시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단체에 감사를 표한다” 며 “우리는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특히 대학교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매스헬스 자격 심사에서 수만 명 탈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수만 명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매스헬스 적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P 뉴스는 찰리 베이커 행정부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1일 보도했다.

매스헬스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행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가입자에 대한 자격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013년 이후로 매스헬스 가입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베이커 주지사는 의료보험에 배정된 예산을 짜내 7억 6천 1백만 달러를 아끼기 위해 매스헬스 가입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시작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공공보험인 매스헬스에는 약 170만 명의 매사추세츠 주민이 가입되어 있다.

베이커 행정부는 매스헬스 가입자에 대한 자격 심사의 첫 단계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03,286 명의 매스헬스 가입자에게 우편을 보내 계속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 중에서 6월 말까지 약 293,000명이 재가입 신청을 하였



베이커 행정부는 의료보험 예산을 줄이기 위해 매스헬스 가입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신청자 중 78% 정도가 계속해서 매스헬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근거해서 재가입 여부가 결정되었고, 매스헬스에 재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주 정부의 헬스 커넥터를 통해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민간 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베이커 행정부는 밝혔다.

매스헬스 가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8월 이후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매스헬스 가입자에 대한 자격 심사 결과 베이커 행정부는 기존 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축소하지 않고도 매스헬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紅蔘
6년근
KOREAN RED GINSENG

하루 2번,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면역력 증진
- ✓당뇨 합병증 예방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항암효과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동인비진 크림
DONGINBI Red Ginseng
Power Repair Cream / Balm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복권 사려면 \$30짜리 즉석복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복권을 사려면 가장 비싼 즉석 복권을 구입해야 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글로브가 복권 (lottery ticket) 상금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즉석복권 (scratch ticket)은 1불 사용당 77센트를 받게 되며 이는 파워볼, 메가밀리언 등 일반 복권의 낮은 승률 50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당첨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30짜리 즉석복권으로 승률은 1달러 당 81센트였다. 저렴한 즉석복권은 1달러 사용당 70센트 승률에 머물렀다.

복권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상당수가 동등한 금액을 벌게 된다. 대부분은 돈을 잃게 되어 있다. 복권사업을 하는 주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는 이유다.

지난 2015년 회기연도 주정부는 사상 최대인 50억 불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이중에 36억 4천만달러를 당첨금으로 지급했다. 주 재무부가 챙긴 수익은 13억 7천만불이다. 그럼에도 주 로터리 관계자는 주정부의 로터리 당첨 지급

금액이 1달러당 72센트로 여타 주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로터리 수익금으로 운영비용, 로터리 판매처 인센티브 등을 제하고 주요 타운 및 지방정부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지난해의 경우 약 10억달러가 지방정부 보조에 쓰였다.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지방 정부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복권 구입 계층은 저소득층이고 이들의 경우 \$30의 고액 복권보다는 \$1-2소액 복권을 구입한다. 결국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지방 정부는 지원하는 일이니 복권사업이 그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복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코넬대 학 경제 심리학 교수 조지 레오웬스틴



사우스 헤이들리 거주자가 지난 1월 \$30 즉석복권인 월드 클래스 밀리언스를 구입, 1백만불이 당첨됐다

박사는 저소득층은 분명히 소액의 복권이 승률이 낫다는 것을 알아도 고액 복권을 사기를 꺼려한다고 밝혔다. 부유층은 복권을 구입해도 훨씬 확률이 높은 복권을 구입하게 된다. \$30 즉석 복권을 구입했을 때 본전 또는 돈을 벌 확률은 1대 2.79로 가장 높아진다.

저소득층, 부유층을 불문하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결국 복권을 구입하는 것은 지는 게임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복권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생각이란 지적이다.

hsb@bostonkorea.com



메인주 식당주인 우는 2살아이에게 고품 논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메인 포틀랜드 소재 한 식당의 주인이 21달된 어린 여자아이에 게 울음을 그치라며 소리쳤던 것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미국 언론의 주요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식당 주인은 SNS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여자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며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포틀랜드 소재 마시스 다이너의 주인인 달라 누지바우어 씨는 자신이 소리지른 사건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식당을 다니는 찾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며 전혀 굽히지 않았다.

누지바우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어린 여자아이가 40여분간 울었으며 자신이 참을 수 없어 카운터를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질렀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WCSH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아의 부모는 3개의 풀사이즈 팬케익을 주문했지만 음식이 도착한 후에도 먹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삶은 선택이며 이를 피할 수 없다. 나는 소리지르는 것을 선택했고, 아이는 울음을 그쳤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 직원들도 행복

하게 했다. 또한 약 75명의 다른 고객들도 만족하게 했다. 그들(아이와 부모)은 다시 오지 않겠다고 떠났고 일부 다른 사람들도 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손해다"고도 했다.

여자아이의 엄마 타라 칼슨은 페이스북에 '어린아이와 있는 사람은 음식을 그리도 오래 동안 기다리는 동안 우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적었다.

나는 내 딸에게 "들어라. 네가 아직 어른이 아니므로 이것이 내가 너를 기르는 방법이다. 아마 나이가 들면 결코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행동하는 미친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모로서 아이가 식당에서 40여분이나 울도록 방치하는 것은 다른 손님들에게 예의 아니었다라며 부모의 무책임에 대해 비난기도 했다.

다른 한 고객은 "아이가 아닌 부모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이야기 했어야 옳은 것"이라며 식당주인이 두살배기에게 소리친 것은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불륜조장 애슐리 매디슨 해킹 기사에 왜 한글 사진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불륜 조장 의심을 받고 있는 스폰서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20일 해킹되었다는 뉴스를 전하는 보스톤글로브의 사진에 한글이 버전이 올라 당혹케 하고 있다.

AP발 보도용 사진을 사용한 글로브의 기사에 따르면 해커들은 애슐리 매디슨을 이용한 고객 3천 7백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크레딧 카드 번호 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해커들은 이 불륜 조장 웹사이트의

운영회사인 애비드 라이프 미디어 인크(Avid Life Media Inc)에게 웹사이트의 완전 폐쇄를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해커들은 지난 19일 밤 2명의 애슐리 매디슨 고객 명단과 애슐리 매디슨의 정보를 일정부분 공개했다.

애슐리 매디슨은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라는 모토로 삼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결혼한 남성 또는 여성으로 불륜을 원하는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다. 애비드 라이프 미디어 인크는 지난해 무려 1억1천



보스톤글로브 애슐리매디슨 관련 기사 보도사진에 한글 버전이 올라와 있다

5백만달러의 수익을 올렸었다.

한편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은 한글용 페이지여서 상당수 한국고객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콜경매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에 매력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978.866.3248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 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인터넷 연결된 자동차, 무선 해킹해 조작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인터넷이 연결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를 해커가 무선으로 해킹해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21일 정보기술(IT)매체 와이어드 등에 따르면 두 명의 보안 전문가가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지프 체로키를 대상으로 수 km 떨어진 곳에서 노트북으로 자동차를 해킹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으로 트위터에서 일하는 찰리 밀러와 보안 전문회사 IO액티브의 크리스 발라섹은 달리는 체로키의 에어컨과 스테레오는 물론 자동차의 속력까지 마음대로 조종하는 해킹 시연 장면을 공개했다.

이들은 2013년에도 차량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파워 스티어링을 무력화하는 등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지프 체로키

원격 해킹이 가능했던 것은 지프 체로키에 장착된 '유커넥트' 시스템 때문이다. 차량의 각종 기능을 제어하는 이 시스템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다.

2013년 후반~2015년 초반 출시된 크라이슬러 차량 중 유커넥트 시스템이 장착된 모델은 이런 해킹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말했다.

크라이슬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들과 접촉해 왔으며, 지난주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배포했다.

커넥티드 카가 확산하면서 보안과 안전 문제가 제기됐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축해 왔다.

올해 초에도 BMW의 커넥티드 드라이브 차량이 제3자에 의해 원격으로 차문이 열릴 수 있는 오류가 발견된 바 있다. mihee@yna.co.kr

골드만 삭스 "금값 온스당 1천 달러 밀돌 것"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금값이 온스당 1천 달러 밀도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마켓워치와 블룸버그에 의하면 골드만 삭스의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 제프리 커리는 22일 회견에서 금값이 1천 달러를 밀돌 것으로 새롭게 전망했다. 금값이 1천 달러를 밀도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마켓워치는 커리가 지난 8일 낸 보고서에서는 금값이 앞으로 12개월 평균 1,050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음을 상기시켰다.

금값은 8월 인도분이 22일 1,093달러를 기록했다고 마켓워치가 전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 7.9% 하락했다고 블룸버그가 집계했다.

AMB 암로는 22일 낸 보고서에서 금값이 9월 말에는 1,050달러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에도 '최악 실적 원자재'에서 헤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시카고 소재 RJO 선물 시장의 필 스트레이블 선임 시장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금) 하강세가 갈수록 불거지는 국면"이라면서 "1,080 달러 선이 무너지면 그간의 하강 장에도 금을 샀던 투자자까지 등을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렉스닷컴의 파와드 라자크자다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금에 대한) 시장 분위기도 중요한 변수"라면서 "옵션과 선물 시세가 (금) 현물보다 더 약세를 보이는 것은 하강장 지속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금 장기 투자 매력력이 이전 같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베스텍 자산운용의 조지 세빌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로이터에 "금융 시장의 위험 헤지 수단으로 금의 최근 실적이 신통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반면에 달러는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jksun@yna.co.kr

Love Costco? Love Amazon?

jet

The most brilliant way to shop. Coming soon.

FREE 6 Month Trial!

아마존에 도전장 내민 '제트'에 유통업계 긴장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골리앗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민 '제트'(Jet.com)의 출범에 전자상거래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0일 시장에 선보인 제트는 취급 물품이 아마존보다는 적은 1천만 개 수준이다. 가지 수는 적지만 포장 단위가 크고 가격이 아마존보다도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기치 아래 저가를 강점으로 내세운 아마존과 역시 저가로 판매되던 대량 구매를 전제로 내건 코스트코의 중간 형태다.

연회비는 50달러로 코스트코보다 약간 저렴하고,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한 아마존 프라임보다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제트는 아마존처럼 책뿐만 아니라 가구, 식품까지 개별 상인들이 입점해 물건을 팔수 있다.

특히 동일 상품의 가격을 사이트 내에서 비교·검색하기 어려운 아마존에 비해 최저가 검색이 쉽다는 점이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게다가 대량으로 살수록 할인율을 높여 가격을 과격적으로 내려준다는 게 강점이다.

다만 전자제품 등 여러 개를 사기 어려운 고가 제품은 아직 아마존보다 가격이 비싸다. 당일 배송을 할 수 있는 아마존에 견줘 아직 배달망이 취약해 배송에 2~5일 정도 걸린다는 게 약점이다.

제트의 창업자 마크 로어는 "우리는 아마존처럼 다양한 물건을 갖추는 동시에 창고형 매장처럼 회원비를 내는 회원들에게 싼 가격에 물건을 판다"고 강조했다.

앞서, 로어는 기저귀 등 육아·생활용품 전자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저귀닷컴'(diapers.com)을 성공적으로 창업해 2010년 아마존에 팔아넘긴 인물이다.

gija007@yna.co.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최지희 헤어 (Bliss Image)
휴일없는 미용실

여름의 산뜻함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 속눈썹 연장 시술 지도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중중중은 치과
중중중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미 '교도소 의문사' 체포장면 공개 경찰이 테이저로 협박

동영상 편집 의혹 증폭...텍사스
공공안전국 "기술적인 문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교
통 단속에 걸려 체포된 뒤 교도소에
서 숨진 미국 20대 흑인 여성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관이 이 여성을 테이저건(전기
충격기)으로 협박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어 경찰의 인종차별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국이 동영상을 편집했다
는 의혹마저 일어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와 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텍사스
주 공공안전국은 지난 10일 휴스턴 인
근 프레리뷰 A&M대학 학생지원센
터로 출근하던 흑인 여성 샌드라 블
랜드(28)가 체포되는 과정을 담은 순
찰차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주 경찰관인 브라이언 엔시니아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꿨
다는 이유로 블랜드의 차를 멈춘게
한 뒤 다가가 "매우 화가 나 보인다"
며 말을 걸었다.

그가 불쾌감을 표시하는 블랜드에
게 통명스럽게 "담배를 끄지 않겠습
니까"라고 요구하자, 블랜드는 "내 차
안에 있는데 담배를 꺼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맞섰다.

이어 차 밖으로 나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블랜드가 거절하자 엔시니아
는 "밖으로 끌어내겠다"며 차 문을 열
고 몸싸움을 벌이다 테이저건을 꺼내
겨누면서 "쏘겠어"라고 외쳤다.

차 밖으로 끌려나와 수갑을 찬 블
랜드는 경찰관에게 욕을 퍼붓다가 "나
는 간질 환자다"라고 주장했지만,
엔시니아는 "좋아"라고만 응수했다.

엔시니아는 체포보고서에서 "블랜
드는 호전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 차



지난 10일 샌드라 블랜드 체포 과정을 담은 순찰차 영상

밖으로 끌려나와 수갑을 찬 뒤에도
팔꿈치를 휘둘렀다"라며 "수갑을 채
운 것은 경찰관의 안전을 위한 조치
였으며, 그가 팔꿈치를 휘두르고 발
로 내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적었다.

하지만, 체포보고서에는 담배를 들
러싼 말다툼과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선 일언반구도 언급되지 않았다.

영상이 공개되자 주 상원의원인 로
이스 웨스트(민주)는 기자회견에서 "
체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영
상을 본 사람은 내게 동의할 것"이라
고 했고, 주 하원의원인 헬렌 기딩스(
민주)도 "이 젊은 여성은 지금 살아야
여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녹화된 비디오(동영상)와 녹음된
오디오(대화)가 일치하지 않는 점은
의도적인 편집 의혹을 불렀다.

NBC 방송과 미국 시사주간지 타
임은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작가인
벤 노튼의 지적을 바탕으로 당국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
을 집중 부각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전체 52분짜리
동영상에서 녹화 25분 무렵 견인차 기
사가 자신의 차 바깥으로 나오는 장
면이 찍혔고, 15초 후에도 같은 장면
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

32분 무렵에도 좌회전을 하려던 흰
색 자동차가 도로 위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뒤 다시 나타나는 등 동일한
장면이 반복됐다.

같은 화면이 몇 차례나 재생됐으나
경찰관의 목소리는 끊기지 않고 그대
로 녹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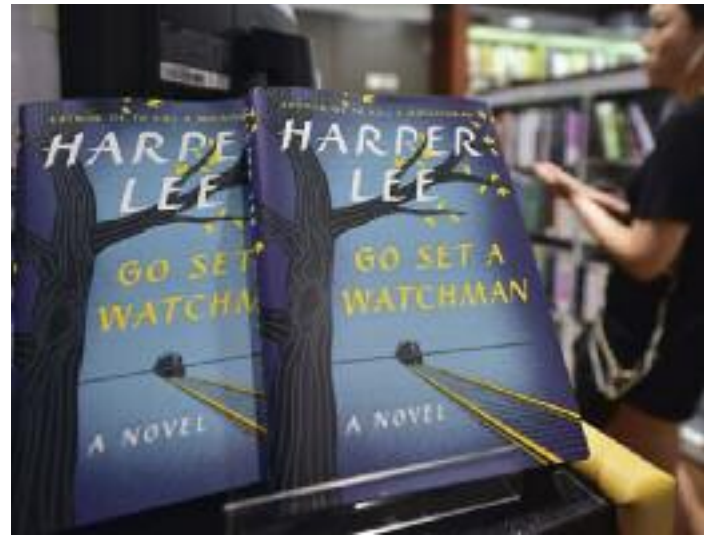
미국 흑인의 인권 운동을 다룬 영
화 '셀마'의 메가폰을 잡은 에바 두버
네이 감독은 트위터에서 "나는 밤별
이로 영상 편집을 하는데, 텍사스 주
공공안전국이 공개한 동영상을 본 누
구라도 영상이 편집됐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쓰고 비전문가도 눈치챌
정도라고 강조하며 편집 가능성에 무
계를 뿔다.

침묵하던 텍사스 주 공공안전국은
22일 오전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
면서 동영상을 편집하지 않았다고 의
혹을 반박했다.

경찰 당국은 블랜드가 지난 13일 교
도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것
으로 규정했지만, 텍사스 주 월터카
운티 지방검찰청의 엘턴 매티스 검사
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의문점이 있
다"며 살인사건으로 간주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텍사스
주 공공안전국이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유족들은
독립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하퍼 리 작가의 신작 '파수꾼'이 미국에서 20일 발간 첫주만에 100만부 판매기록
을 세웠다

하퍼 리 '파수꾼' 미 발간 첫주만에 100만부 이상 판매기록

〈앵무새 죽이기〉의 속편

(뉴욕 로이터=뉴스1) 손미혜 기
자 =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작가
하퍼 리(89)의 신작 '파수꾼'(Go Set
a Watchman)이 미국에서 발간 첫
주 만에 100만부 이상 판매기록을
세웠다. 하퍼콜린스 출판 역사상 가
장 빨리 팔린 기록이다.

출판사 하퍼콜린스는 20일 리 작
가의 신작 '파수꾼'이 지난 14일 발
간된 이래 일주일간 총 110만여부
판매됐으며 수 차례 증쇄주문을 넣
어 북미에서만 총 330만부가량 발행
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전세계 판매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없다고 덧붙
였다.

브라이언 머레이 하퍼콜린스 출
판사 최고경영자(CEO)겸 대표는
"'파수꾼'의 첫주 매출은 우리 예상
을 훨씬 뛰어넘었다"며 "하퍼 리 작
가의 이번 역사적 신작에 독자들이
이같은 반응을 보여 흥분된다"고 말

했다.
'파수꾼'은 미국 최대 서점 반스
앤노블에서 첫날 판매량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 전작 '앵무새 죽
이기'의 판매량도 2배 늘어 베스트
셀러 2위에 등극했다.

'파수꾼'은 하퍼 리가 '앵무새 죽
이기'보다 먼저 쓴 작품이지만 내용
상으로는 속편에 해당한다.

'앵무새 죽이기'에서 여주인공 캐
릭터의 아버지이자 인종 차별에 반
대한 애티커스 핀치가 '파수꾼'에서
는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주의자로
묘사돼 '앵무새 죽이기'의 오랜 팬
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평가를 받
았다.

1960년 출간된 하퍼 리의 전작 '앵
무새 죽이기'는 미 전역에서 호평을
받아 이듬해 풀리처상을 받았다.
1991년에는 미 국회도서관 선정 '성
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위에 올랐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40
여개 언어로 번역, 4000만부 이상 출
판됐다.

yeoulim@news1.kr

오타와 주민 5명중 1명꼴 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가입

인구대비 회원수, "국내외 망라 최
다"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수도 오타와가 불륜 조장 사
이트 애슐리 매디슨의 인구 대비 회원
수로 국내 및 세계 1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오타와
의 애슐리 매디슨 회원은 전체 주민
88만 3천 명 중 18만 9천810명으로 주
민 5명 중 1명꼴로 회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 사이트가 밝혔
다.

이는 캐나다 전국의 주요 도시 중
가장 많은 비율이자 세계적으로도 최

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이 사이트에서 집계된 통계가
전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
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드러
내는 단서로 흥미를 일으키는 것도 사
실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오타와는 세계적으로 가장 추운 수
도에 속하면서 '재미를 잃은 도시'라
는 별칭을 얻을 만큼 단조롭고 무미건
조한 곳이지만 이번엔 '가장 뜨거운
도시'로 떠올라 시선을 끌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사이트의 신입 회원 가운
데 거주지 우편번호가 오타와 의회인
경우가 가장 많아 권력과 불륜의 상관
관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사이트 모회사인 애비드라이프미

디어(ALM)의 노엘 비더만 최고경영
자(CEO)는 미국 워싱턴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의 수도에서 회원 가입비율
이 가장 높은 추세가 공통적으로 나타
난다며 "이는 권력과 명성, 잦은 기회
가 상대적으로 불륜 가능성을 높이는
데다 권력자들이 대개 위험을 감수하
거나 즐기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한 여성 주민은 "조그만 행정 도시
가 애슐리 매디슨의 최대 고객으로 떠
오른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며
"블루 컬러 도시에서는 술집이나 바
에서 일이 벌어지지만 오타와에서는
다른 사람 눈에 띄 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애슐리 매디슨 회



애슐리 매디슨 홈페이지

원 비율이 높은 도시로는 오타와에 이
어 캘거리와 에드먼턴이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최대 도시 토론토와 밴쿠버
, 몬트리올이 차례로 7,8,9위를 기록했
다.

애슐리 매디슨은 최근 전세계 회원

3천789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해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범인을 자처한
'임팩트 팀' 해커들이 전날 회원 2명의
상세한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jaeycho@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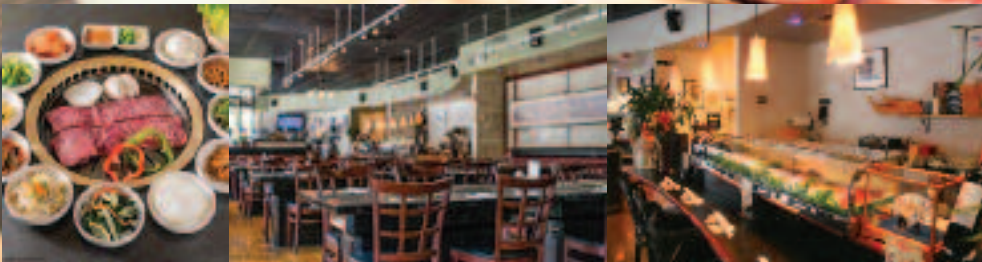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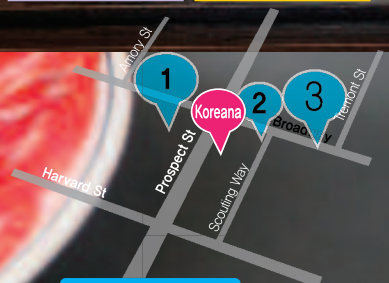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연수입 \$78900, 주거 면적 3072 Sq. 업데이트가 많이 됨.(Anderson window, hard oak floors, granite counters,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 unit laundry), 경쟁력 있는 위치.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8490, 주거면적2366sq, 대지면적4892sq, 좋은 학교, 잘 관리 된집, Green line D 근처, Rt 9, 최상의 위치. 물 근처, 5 year Roof, 업데이트 heating system, 창문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교,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999,000
2013년 새집, 방 4개 화장실 3개, 좋은 학교 보기도문 새집 가격, 주거 면적 3850sq ft, 대지 면적87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65,000
2013 새 콘도 분양. 좋은 학교, 편리한 교통, 렌트비보다 저렴한 페이먼트, 방2, 화장실2개, 주거면적 1300sq ft. 30만불대는 한 유닛 남았음. 95 고속도로 근처, Garage Parking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턴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교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야, '국정원 해킹' 원세훈 · 이병호 전 · 현 국정원장 검 고발

안철수, 기자간담회 갖고 이같은 방침 밝혀...오후 2시 고발장 접수

"검 수사 미진 또는 고려 있다 의심 되면 다른 방법으로 수사 더 진행"

"정보위 사보임, 문제해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어" 가능성 시사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

당 국민정보지킴이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SKT 가입자 정보와 국정원의 위법행위,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라며 "오후 2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주식회사 나나테크 등 해킹프로그램 구입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한 이력이다.

안 전 대표는 "국정원이 국내 SKT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사실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중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최소 3개로, SKT회선으로 나타났다. 이 IP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군지만 확인하면 이게 내국인, 민간인 대상 국내사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민간업체인 SKT는 국가기관의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해킹 대상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정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스파이웨어 설치유도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나나테크 스파이웨어 수입판매는 통비법 위반으로 이 시점에서 다른 증거 없이도 명백히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런 부분은 현재 정황만으로 위법성이 확인돼 검찰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죽음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킹프로그램 운영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살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내부에서 이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내부조사 내용이 검찰조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더 강도가 센

보안조사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실확인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가려고 한다"며 "우선 검찰수사 의뢰하는 게 정식 절차에 의한 것이고,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고려가 있었다는 의심이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국정원은 현재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불법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해 정보위 간사를 통해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앞으로 세가지 트랙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국민정보지킴이위원회는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 및 정책대안을 준비할 것이고, 원내 정보위를 중심으로는 진실규명 작업을 병행할 것이다. (여기에) 검찰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가능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킴이위원회 위원장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정원 본연의 일인 안보에 집중케 하기 위함이고, 정치공세가 아닌 정책적 접근을 통해 진실규명을 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은 외면한 채 정쟁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쟁으로 비추면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자신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밀자료 유출',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서

"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뭐가 잘못된 행위냐"며 "자료 요구 중에 국가기밀사항은 국회 정보위에서 밝히면 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범죄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정쟁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전 대표는 정보위로 임시배치(사보임)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문제의 핵심은 제가 정보위로 옮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청문회를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훨씬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ULY 24TH - JULY 30TH, 2015
 ONLY FOR **H 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SUMMER

HEAT WAVE HOTTEST SAVINGS!

Enjoy the best prices on all your summer outings essential at Hmart.

신나고 설레는 여름바캉스 준비도 역시 H마트! 저렴하고 간편하게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 WHITE PEACH/WHITE NECTARINE 백도/백천도 **\$1.99** (FRI./SAT./SUN ONLY 24/25/26 ONLY)
- ITO EN TEA DRINK 이토엔 티 드링크 All Varieties/ 67.6fl.oz. **\$2.99**
- HEAD-ON WHITE SHRIMP 머리있는 흰새우 40-50's **\$5.99**
- SLICED PORK SINGLE BELLY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5.99**
- HAIO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3.99**
- KINGSFORD MATCH LIGHT CHARCOAL **\$7.99**
- BAMBOO FLOOR MAT 고급 대나무 돛자리 **\$39.99**

HAIOREUM MACKEREL PIKE

Caught from sea.

잡탕 백선생의 초간단 레시피로 "백선생의 잡탕" 맛보세요!

Mackerel Pike Steeped in Soy Sauce

2-3 1:1:1 (SOY SAUCE: SUGAR: WINE) 2TBSP (2 TSP)

3:1:1 (SOY SAUCE: SUGAR: WINE) 2TBSP (2 TSP)

5:1:1 (SOY SAUCE: SUGAR: WINE) 2TBSP (2 TSP)

go go go to our SAJO SALES EVENT

· 사조 브랜드 모음전 & 시식회 ·

세계 일류 종합 식품 기업, 사조 브랜드의 베스트 상품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H마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조 브랜드 모음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VERYTHING TASTES BETTER WHEN IT'S JINGA

HANDCRAFTED WITH THE FRESHEST AND HEALTHIEST INGREDIENTS.

엄선된 식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까지 고려한 진가의 건강 반찬들을 맛보세요.

JINGA The Freshest Korean Tradition

<p>SO CRISPY, SO HEALTHY. Fuji Apple 후지 사과 \$0.99 lb.</p>	<p>IT HELPS YOU TO FIGHT BACTERIA. Ginger 생강 \$1.99 lb.</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p>	<p>Purple Yam 보라색 고구마 \$1.99 lb.</p>	<p>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6.99 lb.</p>	<p>Pork Spare Ribs for BBQ 바베큐용 돼지갈비 \$3.49 lb.</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양념 벌집 삼겹살 \$5.99 lb.</p>	<p>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 목살 \$5.99 lb.</p>	<p>White Bass 냉동 화이트 베스 \$2.99 lb.</p>	<p>Half-Shelled Bloody Clam 냉동 반칸 꼬막 \$4.99 lb.</p>	<p>TONGTONGBAY Small Octopus 통통배 상상 낙지 Whole/1.5 lbs. - pkg. \$6.99</p>	<p>SUHYUP Seaweed Fulvescens 수협 냉동 매생이 7.05oz. \$2.99</p>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9.99 (MON - THU ONLY 27/28/29/30 ONLY)</p>	<p>KAGAYAKI Premium Short Grain Rice 카가야키 쌀 15 lbs. \$19.99 (MON - THU ONLY 27/28/29/30 ONLY)</p>	<p>SUHYUP Premium Roasted Seaweed 수협 전장 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8.99 (MON - THU ONLY 27/28/29/30 ONLY)</p>	<p>BOHAE Maewon Prime Plum Extract 보해 매원프라임 500mL x 2btl./box \$14.99 (MON - THU ONLY 27/28/29/30 ONLY)</p>	<p>HAIOREUM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콩치 통조림 14.1oz. 2\$3 ea./for</p>	<p>DANYA Seasoned Pollack Roe 단야 명란젓 7oz. \$6.99</p>
<p>ASIAN STYLE STARCH NOODLES 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 당면 1.5 lbs. 2\$5 ea./for</p>	<p>HAITAI Nougat Ice Bar 해태 누가바 70mL x 8bars/box \$3.99</p>	<p>DEL MONTE Juice Drink 델몬트 주스 드링크 All Flavors/8.1fl.oz. \$0.99</p>	<p>Nickel Silver Pot 양은 전골 냄비 24cm/ea. \$6.99</p>	<p>Harmony Apron 하모니 앞치마 All Colors/ea. \$9.99</p>	<p>TIGER IH Elec. Rice Cooker 타이거 IH 전기밥솥 JKH-G18U/ 10cups - ea. \$249.99</p>

자살 · 파일복구...5대 쟁점에 비춰본 국정원 해킹 논란의 현주소

해킹 목적 · 국정원 직원의 죽음 · 현장조사 시점 등 여야 '침예'

(서울=뉴스1) 박웅진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혹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해 각자 다른 풀이를 내놓으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해킹의 목적, 국정원 직원의 자살, 현장조사,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 시점 등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5가지 쟁점을 정리해봤다.

◇ 해킹 목적... "대북 · 연구용" vs "민간인 사찰 의심"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했지만 이는 대북 · 연구용으로, 국내 민간인에 대한 사찰 등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2012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20개 회선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18개는 대북정보수집용으로 2개는 자체 실험 · 연구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최신 기술의 연구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국정원 해명에 동조하면서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주장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프로그램 구매를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점, 이 프로그램을 구매한 키프로스의 정보기관장이 사퇴한 점 등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지난 19일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에 나오는 로그파일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4일 오후 전세계 70여개국의 인터넷 IP주소로부터 해킹팀 본사로 특정 데이터가 전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70여개국의 IP주소 중 한국 IP는 총 138개이고, IP를 할당받은 기관이 KT · 서울대 · 한국방송공사 · 다음카카오 등인 점을 들어 "해킹 프로그램을 연구 및 대북 용도로만 썼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말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여당을 통해 "IP 138개는 국정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이 디도스 공격 등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차단하기 위해 해킹팀사가 친방 화백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해당 로그파일을 보면 디도스 공격에 의해 같은 시각 우리나라 IP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 IP로부터 동시접속 4만4718건이 시도되는 전형적인 디도스 공격 패턴을 보인다"고 파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기관들이) 디도스 공격에 이용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국정원의 주장을) 주목할 만한 광경은 아닌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킴이 위원장은 21일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여러 휴대전화 IP 중 국내주소인 휴대전화 IP 주소 3개가 있다"며 추가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목숨 끊은 국정원 직원... 자살 동기도 이견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자살 동기를 두고도 여야는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임씨의 유서 등을 바탕으로 임씨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을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임씨의 죽음이 새정치연합의 '정치공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또 이례적으로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낸 데 이어 국정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공세를 멈춰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임씨 죽음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즉각 반박했다.

신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죽었다고 한다면 여처구니 없는 설명이다. 자살한 분의 어저께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매우 많다"며 "무조건 야당 때문에 죽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다면, 납득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국정원의 불법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관련 직원의 죽음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임씨 죽음에 대한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이 같은 태도가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임씨가 내부감찰에 압박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위원장은 정보위를 통해 임씨의 진술서와 감찰조사 등 자료의 제출을 국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왼쪽)과 정보위 소속 박민식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임씨는 어떤 파일을, 왜 삭제했나...복구는?

임씨는 유서에서 "혹시나 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자료를 삭제했다"며 "외부에 대한 과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임씨의 유서 내용대로 삭제된 파일은 대북용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임씨가 파일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데도 파일 내용이 대북용이기 때문에 국정원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파일을 지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20여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기 때문에 파일을 삭제해도 쉽게 복구될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실수'로 파일을 지웠을 것이라 새누리당의 추측이다.

새정치연합은 삭제된 파일의 내용에 대해 선부론 의견을 피하고 있지만 기저에는 민간인 사찰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 의심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또 임씨가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을 담당하던 실무자로 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에는 다른 부서에 소속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임씨가 권한 없이 파일을 삭제할 수 있었던 경위에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별이든 일반 감찰이든 간에 감찰 중에 이분(임씨)이 (파일을) 삭제했다는 데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디지털 포렌식 방식을

통해 삭제 파일의 100%를 복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파일이 온전히 복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이번에도 100% 복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설사 국정원이 100% 복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 국정원 현장조사... "당장 가자" vs "의혹검증 먼저"

국정원 현장조사 시기를 두고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정보위 차원에서 당장에라도 국정원을 방문하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선(先) 의혹검증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현장조사가 우선인데, 청문회 · 현안질의 · 특위구성 ·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당초 사찰 의혹이 불거져 자 국정원 현장조사를 먼저 제한했던 새정치연합이지만, 현재는 의혹검증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보위원들만 선불리 현장을 방문했다가는 전문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텐데, 이는 결국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 얘기다.

21일 소집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의 '2+2회동'에는 국정원 해킹과 관련한 국정원 현장조사 날짜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으나 합의는 보지 못한 채 일단 결렬됐다.

협상은 이날 저녁 8시에 속개될 예

정이지만 새정치연합이 현장조사 시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당장 날씨가 잡히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 프로그램 구매... "선거에 이용?" vs "다른 나라도 그 시기"

국정원이 밝힌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점은 각각 2012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둔 1월과 7월로, 해킹 프로그램 10회선씩 구매가 이뤄졌다.

여기에 국정원은 18대 대선(2012년 12월19일)을 2주 가량 앞둔 12월6일과 19대 총선을 한달(4월11일)여 앞둔 3월에 각각 30개와 35개 회선의 추가주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점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임 기간이라는 점에서 선거와 관련된 인물이 사찰 당했을 것이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국정원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공격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철우 정보위 간사는 지난 20일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그것(해킹 프로그램)은 35개국에서 97개 정보수사기관이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그 시기에 몰려 있다"고 해명했다.

또 2010년 스마트폰 상용 이후 해킹팀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 · 국정원이 구매 목적으로 해킹팀을 방문한 게 2011년, 한국 독점 판매권을 가진 나나테크를 통해 구매가 이뤄진 게 2012년 1월이라고 부연했다.

pej86@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새정치 의총, 혁신안 난상토론...문 거취 · 신당론 설전도

의원들, 선출직공직자평가위 등 혁신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

비주류 일각, 문재인 사퇴론 제기...주류측 "신당·분당 얘기 옳지 못해"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개최한 데 이어 오후 열릴 중앙위로 인해 잠시 정회했다가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이 중앙위에서 통과된 직후 속개하는 등 4시간 30가량 '마라톤 의총'을 진행했다.

의총은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안 등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강기정 문병호 의원은 "(선출직)평가위를 상설화할 때 평가위가 권력화되고 의원이 관료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변재일 의원은 "평가제는 다 좋은데, 의원들이 평가에만 목을 매고 의정 활동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원식 의원은 "(평가위가) 정치인들을 평가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당 최고위원인 유승희 의원은 "평가위 위원 추천권을 혁신위가 갖게 되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그간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 전반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쏟아내기도 했다.

최원식 의원은 "진단 없는 처방으로 혁신의 방향을 잃었다. 4·29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혁신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많은 안들이 나왔지만 현실을 파악하고 실천할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인 홍의락 의원은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나 전국 정당화 방안이 없다"고 말했고, 이언주 의원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4·29 재보선 직후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패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혁신위가 마치 제도개선위원회나 당헌당규위원회 같다. 혁신안만 통과되면 혁신이 되고, 지지율이 오르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최근 일부 인사들의 탈당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신당론과 맞물려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내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노(비노무현)·비주류 의원들은 호남 민심 악화를 부각시키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내 통합을 위한 혁신위의 근본적 혁신안 마련을 주장했다. 주류측 의원들은 '친노 대 호남' 프레임은 옳지 못하며 문 대표 사퇴론과 신당론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광주 출신인 김동철 의원은 "지금 호남민심은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호남민심이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표심 또한 동조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이대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문 대표의 살신성인을 요구한다.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의 혁신 과제"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고 주장했다.

비주류에 속하는 황주홍 의원도 "호남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에 실망한 호남민심이 더 악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위기가 위기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범주류인 강기정 의원은 "친노 대 호남 프레임은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이상호 의원도 "호남여론을 구실로 당을 깨자거나 신당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표에 대한 비판은 좋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신당이나 분당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맞섰다.

신기남 의원은 "신당은 명분이 있어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하고, 통합을 통해 더 큰 승리가 필요할 때 명분이 선다"며 "현재 (신당론은) 둘 중에 어느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3~4차례 혁신안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의원들과 더 소통하고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당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를 통해) 혁신위가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을 거론, "앞으로 더 강도높은 안이 제출되겠지만 혁신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합과 신뢰

다. 혁신도 그 속에서 실천돼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면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저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후덕 최민희 의원 등은 "총·대선 때 'SNS 국정원'을 통한 조직적 개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 해킹 사건을 어쩔쩔 대응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한 언론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gayunlove@news1.kr

공무원연금 이어 노동개혁...여, 국정현안 다시 '총대'

4대개혁별 당 특위 설치기로... 김무성 "공무원연금 하트"

(서울=뉴스1) 서상현,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노동개혁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공공·교육·금융·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필두로 박근혜정부 4대 부문 개혁의 전면에서 나설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상반기에 우여곡절 끝에 완수해 낸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다시 '총대'를 맨 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부문 개혁을 당정청이 힘을 합쳐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4대 부문 모두 당에 특위를 만들어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가동했듯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에 4대 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최고위원들을 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며 "

특히 노동개혁 특위는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 구성하고 당정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새누리당은 최근 들어 '노동개혁'을 화두로 삼아 '일로매진(一路邁進)'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지난 16일 청와대 회동 이후 김 대표는 거의 매일 노동개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 직전에도 다시 한 국노총의 천막농성장을 찾았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금융 교육 공공 등 나머지 3대 개혁 과제와 관련해 해서도 순차적으로 당 특위를 각각 신설해 당 최고위원들을 위원장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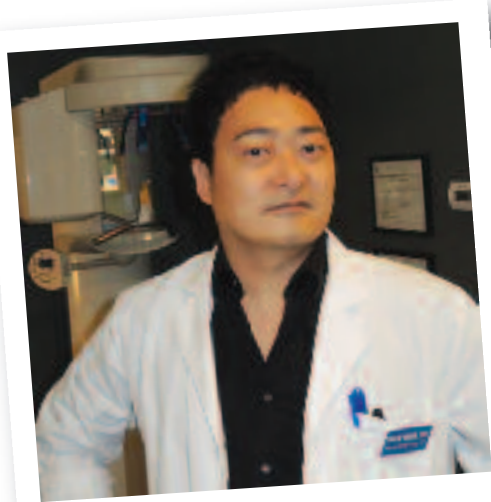
앉힌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를 모두 '개혁 수장'으로 앉혀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위 간 경쟁도 어느 정도 예견되면서 4대 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정청은 이날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 외에도 추가경정

예산(추경)안의 24일 처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대책으로 방역체계 개선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특별사면, 국가정보원 해킹, 개각 등 여타 현안들은 당정청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dearpure@news1.kr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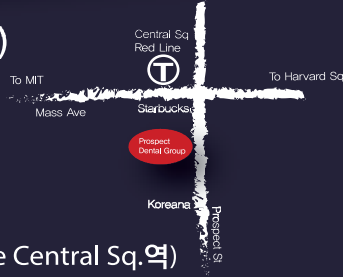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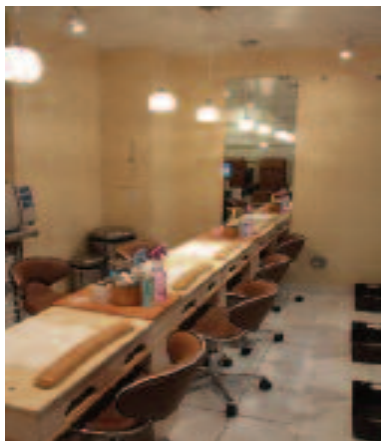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포터스퀘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칼라, 프렌치 젤, 네일 아트, 각질 제거, 두피 마사지 등 다양한 트리트먼트

SORA SHISEIDO 소라 화장품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주름방지,
리프팅, 탄력, 등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특별히 잡티를 없애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엘티뮤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 모델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입법' 7월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국회 정무위, 정부 "국무총리·국무위원, 적용대상서 제외"야 난색

(경기=뉴스1) 이정우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조항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논의가 21일 재개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등을 심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공직사회의 혁신과 한국사회 접대 문화에 변화를 일으킬 법안으로 평가받는 김영란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3월3일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규정만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통과됐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당시 정무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일단 법안에서 제외됐다. 결국 국회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규정만으로 별도 법안을 성안해 처리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정부 제출안은 친족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제척,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직무 관련 외부 활동 금지, 공직자 가족의 해당 공공기관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용 전 3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일 때 2년간 해당직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야당과 정부가 팽팽히 대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외하자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 야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만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위헌 논란이 반복돼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여야 모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

했다. 정무위는 22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지만 이날과 다른 부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7월 국회에서도 김영란법의 온전한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krusty@news1.kr

"프로골퍼 배상문 입영 연기 안 된다" ...행정소송서 '패소'

(대구·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캘러웨이)이 대구경북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상문은 국외이주 목적 보다는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단기간씩 입영 연기를 받아왔고,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에서도 활동이 가능했다"면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국외이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상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PGA에서 우승을 거두고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준 배상문의 주장은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기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인정된다"면서도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오히려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이어서 배상문 스스로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금까지 올림픽 등 대회 참가를 이유로 만 28세 이후 입영을 연기받은 체육인이 4명 있는데, 이들은 대회 참가가 확실한데다가 대회에 임박해서 단기간에 입영을 연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배상문의 경우 입영 연기 최종선인 만 30세

가 되는데다 내년 브라질 올림픽 출전이 불분명하고, 대회와 무관한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배상문은 2011년 1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병역법 제70조 1항 등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단기 국외여행'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배상문은 28세까지 국내 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받았으며, 지난해 12월31일 영주권 신규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문이 성균관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등록했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국내에 133일 이상 머물러 국외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병무청의 불허 이유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배상문은 올 1월31일까지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지난 2월2일 배상문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배상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배상문 측은 "내년에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출전 기회를 주면 배상문이 스스로 승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박주영 처럼 메달을 따서



지난 22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캘러웨이)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도 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 28세에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대체복무 혜택을 받은 박주영처럼 스포츠 특기자로 대체복무를 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병무청은 지난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불허하면서 1개월 내에 군대에 가든지, 범죄자가 되든지 선택 하라면서 배상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문청 측은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해 다양한 방법으로 만 30세까지 입영기일을 미룰 수 있었는데, 배상문이 그렇

게 하지 않아 고발 조치한 것"이라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14일 동안 국내에 있었고, 국내 대학원에 재학해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해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외이주를 위해 계속 국외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없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2월 배상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leajc@naver.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Seoul Seolryeongtang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Seoul Seoul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대상	목적	부정신약
남자	2개월	2개월
여성	3개월	3개월
남자	4개월	4개월
여성	5개월	5개월
남자	6개월	6개월
여성	7개월	7개월
남자	8개월	8개월
여성	9개월	9개월
남자	10개월	10개월
여성	11개월	11개월
남자	12개월	12개월
여성	13개월	13개월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보스톤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샷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침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Korean) 4:30pm(Korean)
Weekday Tuesday 10:30am(Korean), Thursday 7:30pm(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2015년 9월7일까지
2015년 9월20일-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작은 삶이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 러니마 (8편 3:18)

담임목사: 우시창
안 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12station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턴 남부지역의 한인교회

보스턴새힘교회

76 Pierce St. Stoughton MA 02072

주일예배 오후 1시 617 622 5225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건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한진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이지니
이민 변호사



곽보나
이민 변호사



Yuqi Wu
중국인 케이스 매니저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츠가 속한 AFC 동부지구 전력 대폭 상승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디펜딩 챔피언으로 2015 NFL 시즌을 맞이하게 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속한 AFC 동부지구에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우승팀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올해 오프 시즌 동안 전력이 가장 많이 상승한 팀들이 AFC 동부지구 팀들이다. 패트리어츠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AFC 동부지구 내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패트리어츠는 2001년 이후 14번의 시즌 동안 12번 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도 패트리어츠가 지구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같은 지구에 속한 다른 팀들의 전력이 작년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패트리어츠를 제외한 AFC 동부지구 팀들을 전력을 살펴보자.

버팔로 빌스

빌스의 현재 로스터를 살펴보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스타 쿼터백 없이 수퍼볼을 우승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아마도 빌스를 향한 이 질문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될 것이다.

최근 NFL은 러닝보다는 패싱 공격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패싱 시대라고 불릴 정도다. 따라서 엘리트 쿼터백은 수퍼볼 우승을 노리는 챔피언 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최근 5년 동안 수퍼볼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들의

쿼터백은 이름도 쟁쟁한 탐 브래디, 러셀 윌슨, 조 플라코, 일라이 매닝, 그리고 아론 로저스다.

빌스에 스타 쿼터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쿼터백 포지션을 제외한 다른 포지션을 살펴 보면 빌스의 로스터는 상당히 수준급이다. 러닝백 브렉스 맥코이, 슬롯 리시버 퍼시 하빈, 타이트 엔드 찰스 클레이 등 주요 포지션은 물론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도 플레이오프 팀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빌스의 로스터에 있는 3명의 쿼터백은 엘리트 쿼터백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있다. 쿼터백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 스타 쿼터백이 없는 빌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뉴욕 제츠

보통 NFL 팀들은 오프 시즌 동안 가장 약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매우 기 위해 노력하고, 그다음 필요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채워 나가려고 한다. 샬러리 캡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약점을 스타급 선수로 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올해의 제츠는 가장 큰 약점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3-4개의 약점을 대폭 보강했다. 샬러리 캡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시즌 제츠는 NFL에서 3번째로 많은 터치다운 패스를 허용하고, 3번째로 높은 상대팀 쿼터백 레이팅을 기록했다. 세컨더리에 있었던 큰 구멍



올해는 AFC 동부지구에서 치열한 순위 싸움이 예상된다

은 대릴 레비스와 안토니오 크로마티를 영입하며 사라졌다. 특히 레비스는 상대팀에서 가장 뛰어난 리시버를 경기장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코너백이다.

드래프트 1순위에 뽑힌 레오나드 윌리엄스는 기존 선수들과 조화를 이뤄 상대팀 쿼터백을 압박할 것이다. 제츠의 디펜시브 라인인 상대팀의 포켓을 손쉽게 무너뜨리는데 정평이 나 있다. 공격에서는 와이드 리시버 브랜든 마살과 데빈 스미스의 영입으로 패스 공격에 활로가 생겼다.

제츠의 약점이 보강되었고, 강점은 더욱 강해졌으며, 쿼터백이 지원을 받

게 되었다. 새로운 부임한 토드 볼스 감독의 지도력에 따라 제츠는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할 수도 있다.

마이애미 돌핀스

돌핀스에는 NFL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수비수 인다머킹 수가 있다. 6년 동안 1억 1440만 달러를 받기로 계약하고 돌핀스에 온 수비는 지난 시즌 NFL에서 가장 많이 쿼터백을 압박한 디펜시브 태클이다.

기존에 있던 카메론 웨이크와 계약을 연장한 돌핀스는 패스 러시 부문에서는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을 구

축했다. 두 선수가 같은 팀에 있다는 것은 상대팀 쿼터백에게 악몽과도 같은 일이다.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와이드 리시버를 선택한 돌핀스는 쿼터백 라이언 테너힐을 위해 케니 스틸스도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했다. 지난 시즌 뇌진탕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타이트 엔드 조단 카메론도 건강을 회복했다.

돌핀스는 공수 양면에서 전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어쩌면 2000년도 이후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돌핀스가 올해는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jsi@bostonkorea.com

[MLB] 2루타-홈런-안타-3루타...추신수, 통산 첫 사이클링 히트 맹활약

(서울=뉴시스) 권혁준 기자 = 지난 2경기 동안 선발에서 제외됐던 '추추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통산 첫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는 맹타로 '한풀이'를 했다.

추신수는 2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15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7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첫 타석 2루타, 두 번째 타석 홈런, 세 번째 타석 안타에 이어 9회초 네 번째 타석에서 3루타를 터뜨렸다.

한 경기에서 단타-2루타-3루타-홈런을 모두 기록한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 1059경기만에 개인 통산 첫 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추신수는 이날 4안타 중 2안타를 좌완투수에 게서 쳤다. 좌완 선발이 나왔을 때 자신을 선발에서 제외했던 제프 배니스터 감독에게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활약상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5타수 4안타(1홈런) 3타점 3득점에 1도루까지, 전방

위 활약을 펼친 추신수는 단숨에 시즌 타율을 0.226에서 0.235까지 끌어올렸다. 시즌 타점(42타점)과 득점(41득점)도 '40' 고지를 돌파했고, 홈런은 12개, 도루는 2개가 됐다.

추신수는 0-0으로 맞선 2회초 무사 1루에서 첫 타석을 맞이했다. 상대 선발 카일 켄드릭의 초구를 공략해 우익수 방면 2루타로 연결했다. 1루주자 엘비스 앤드루스가 홈을 밟아 추신수는 팀의 선취타점을 올렸다. 시즌 16호 2루타.

추신수의 타점을 시작으로 텍사스도 힘을 냈다. 로빈슨 치리노스의 볼넷, 투수 맷 해리슨의 희생번트로 계속된 1사 2,3루에서 달라이노 드실즈가 좌전안타를 때려내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추신수와 치리노스가 홈을 밟아 3-0이 됐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좀처럼 식지 않았다. 4회초 선두타자로 두 번째 타석을 맞은 추신수는 볼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88마일(약 141.6km)짜리 싱커를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홈런으로 연결했다. 추신수의 후반기 첫 홈런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21일 열린 2015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2회초 첫 타석에서 1타점 2루타를 치고 있다

포이자 시즌 12호 홈런으로 스코어는 4-0으로 벌어졌다.

추신수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회초 1사 1,3루에서 세 번째 타석을 맞이한 추신수는 바뀐 투수 좌완 요한 프란데를 상대로 수비 시프트를 깨뜨리는 중전안타로 1타점을 추가했다. 이후 해리슨의 타석에서는 2루 베이스를 훔쳐 시즌 2호 도루를 기록하기도 했다.

7회초 네 번째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9회초 끝내 대기록을 달성했다.

9회초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1볼1스트라이크에서 상대 세 번째 투수 좌완 렉스 브라더스의 3구째 92마일(약 148km)짜리 직구를 받아쳤다. 쪽쪽 뻗어나간 타구는 그대로 중견수의 키를 넘겼고, 추신수는 3루까지 내달렸다.

추신수는 치리노스의 내야안타 때 홈을 밟아 이날 경기 3득점째를 올렸다.

텍사스는 사이클링 히트로 맹활약한 추신수와 역시 4안타를 친 드실즈 등의 활약으로 17안타 9득점을 뽑아냈고 콜로라도 타선을 9회까지 무득점으로 묶어 9-0 완승을 거뒀다.

starburyny@news1.kr

보스톤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보스톤 **코리아**

보스톤 최고의 한식집을 선정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한식 식당

**BEST OF
KOREAN
RESTAURANT
2015**

안녕하세요. 보스톤코리아는 한인 여러분만 보고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만 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여러분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미주의 한인신문으로 한글 전도사 역할을 해온 저희가 최고의 한식 전도사 한식 식당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식 식당은 매사추세츠 주내로 한정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곳에 이렇게 많은 한식당이 한식을 미국에 전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한식당 중 2개를 골라 공모 용지에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응모는 9월 18일(18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합니다. 응모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해 한국왕복 비행기표를 드립니다. 또한 2등 당첨자 1명에게는 애플워치를 드리며 3등 당첨자에게는 최고로 선정된 음식점 상품권 1매(25불)를 10명에게 드립니다.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한식당에는 보스톤코리아 독자 선정 최고의 한식당 증명서를 증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1인 1투표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투표는 불가합니다.

한식당 명단 (총 45업소)

- | | |
|-----------------|------------------|
| 가든하우스(로렌스) | 산수갑산(벌링톤) |
| 가주순두부(울스톤) | 서울설렁탕(울스톤) |
|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 서울 레스토랑(보스톤) |
| 가유가(울스톤) | 수라상주문음식(앤도버) |
| 뉴장수갈비(벌링톤) | 조조순두부(케임브리지) |
| 다모여(보스톤) | 아리수 레스토랑(레먼스터) |
| 다빈(렉싱턴) | 야수(브루클라인) |
| 다오라스시(브락톤) | 영차우루(벌링톤) |
| 리틀부산(메이나드) | 오빠스시(울스톤) |
| 메주(서머빌) | 우리(알링톤) |
| 명동일번지(울스톤) | 우전(벌링톤) |
| 미나토 스시 | 우정식당(에이어) |
| 미소노(브루클라인) | 웨스트보로한국식당 |
| 미스터 스시(알링톤) | 이가그릴(로렌스) |
| 미스터 스시(브루클라인) | 제이피시푸드카페(보스톤) |
| 본촌(울스톤) | 청기와 레스토랑(메드포드) |
| 본촌(케임브리지) | 코리아나 레스토랑(케임브리지) |
| 북경반점(울스톤) | 코리아그릴(퀸지) |
| 북경반점(서버빌) | 하나스시(케임브리지) |
| 비빔(울스톤) | 한국가든(울스톤) |
| 사무라이(보스톤) | 한마루(울스톤) |
| 사뽀로(뉴튼) | 젠320(브루클라인) |
| 사뽀로스시바베큐(웨스트보로) | |

혹 빠진 곳이 있으시면 저희 보스톤코리아(617-254-465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한식당 선정 및 경품 신청서

선정 한식당 1:

선정 한식당 2:

응모자 정보 기입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한식당 중 2개를 골라 신청 용지에 적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중복 투표는 불가하며, 응모는 9월 18일(18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합니다.

후원 업체: **bka** KFood with BKA
BKA Architects, Inc.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부지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000
Sharon, MA
3 Beds, 2 Baths, 1440 sf.
Two-level ranch home
Fully fenced in yard,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57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03 sf.
New septic system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 Baths, 1266sf.
Great Location!!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60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9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

Condo Rental
\$2,750
Lexington, MA
2 Beds, 2 baths, 1318sf.,
Kwang O. Kim 617-792-8615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450
Acton, MA
2 Beds, 2.5baths, 820sf.,
안전하고 좋은학군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8년 144 / 2009년 144개 사무소 /
전국에 걸쳐 부동산 / 2008년 144개 사무소 / 2009년 144개 사무소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Restaurant  \$47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20,000 Boston, MA Beer&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턴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손득한
Broker/Master of RE
www.canaa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 29 July 24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96

휴일없는 미용실

블리스 이미지 (Bliss Image)

블리스 이미지

11 A Corinth St. Roslindale, MA 02131
617-323-0023

안티바... 더 좋은 서비스...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서비스...

Welcome, **7:30**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기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어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공감업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7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7월 31일까지 2년 약정시
이동 기입지 7월 시청료 무료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로슬린데일(Roslindale)에 위치한 블리스 미용실(Bliss Image)에서는 헤어, 페이스, 눈썹, 네일, 왁스 등 모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블리스 이미지는 인근 행크 빌리지, 데드햄, 브루클라인, 하이팍 동네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특별히 한국인 손님들에게는 모든 서비스와 물품을 10% 디스카운트 할인 하고 있다.

5년 전 Salon A 미용실 한 코너를 맡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최지희 헤어스타일리스트는 지난 12월 Salon A 미용실 전체를 구매해 블리스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매장이 새로 개장됐다.

최 디자이너는 자그마치 자격증을 4개나 갖고 있어서 각 분류에서 최 디자이너를 찾는 손님들도 여러 명이다. 최 디자이너의 눈썹 왁싱, 연구 화장, 속눈썹 연장 실력은 명성이 자자해 뉴욕으로 연장 시술 지도를 가서 시범을 보여주기도 한다. 젊은 한인 남성들이 눈썹을 다듬기 위해 자주 최 디자이너를 찾고 있어 남성들 사이에도 인기가 높다.

퀵지에 거주하는 한인남성 K씨(24)는 “최 스타일리스트의 섬세하고 꼼꼼한 서비스에 만족한다”

며 이어서 “늘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덧붙였다.

블리스 이미지의 손님들 또한 다양하게 어린아이들부터 50대가 넘는 손님들로 남녀노소를 포함해 외국인들 까지도 꾸준히 블리스 이미지를 드나들고 있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각자 마사지, 네일, 헤어 서비스를 모두 받고 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위층에 마련된 페이스 룸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흔하다. 페이스 트리트먼트중 스페셜 트리트먼트인 마이크로데브레이션(Microdermabrasion)이 손님들 안에서 인기이다. 마이크로데브레이션은 ‘피부 제일 바깥쪽 막을 벗겨내는 자연적인 트리트먼트’이며 ‘얼굴 주름과 모공 축소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페이스’ 이라고 최 디자이너가 제안했다. 아울러 최 디자이너는 “여성의 피부는 꾸준히 관리해 줘야 건강하고 젊은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디자이너는 “처음 손님을 보는 순간 어떤 스타일의 헤어와 눈썹 모양, 피부 트리트먼트가 필요할지 보여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전해 미용서비스에 대한 열정이 남 못지않은 모습을 표현했다. 최 디자이너의 바람

은 “모든 준비가 되었고 항상 성의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블리스 이미지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jham@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배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열어 설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네)	603-899-8201
뉴잉글랜드클럽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주회	978-902-8305
NE교역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세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02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치 앤 앨버 교회	978-274-235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뉴스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우이스덴탈그룹	781-391-5606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알병원(병리)	203-330-8080
------------	--------------

보석

국제보석사	617-523-2553
미래보석	617-298-6661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레딩에 있는 새로 오픈한 네일가게에서 함께 일할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603-401-1581

매니큐어리스트 구함. 상당 후 렌트 or 이익 분배 가능. T. 617-331-1101

풀타임 아이들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실 분(월-금), 자동차 운전 가능하신 분, 영어가능자, 경험자 우대 myk@myk-d.com

세탁소 셔츠 홀세일합니다. (산코사 기계 사용) T. 617-631-4915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CSI 찰스타운 캠퍼스에서 국제 입학 담당자를 구합니다. http://csinow.theresumator.com/apply/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or Sale - Nail & Spa

Owner retired, Well established Nail & Spa in business 15 years, 6 tables, 4 spa chairs, 3 facial/waxing room, Modern elegant decor. Steady clientele. Big cash flow. Clients list included. Asked for 85K.
Buyer call 781-329-2716 English or Chinese

For Sale Dry Cleaner Brookline Collidge Corner

Well established customer and road basd (since 1959) New "Eco-Friendly" dry cleaning machine. Asking \$299,000
Contact Carl T.617-577-9872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Amherst 3개 대학 근처 세탁소 팝니다. (16년간 운영, 주인 은퇴) (영주권 신청 가능) T. 413-549-3612

올스톤에 위치한 오피스 스페이스 서블릿 입주자 구합니다. T. 617-418-0784 (수잔)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했습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N[그로서리 매매]
그로서리 매매코저 합니다 Hot Food, 델리,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저 합니다. T. 501-753-1691

N[매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면적 1,600sf T. 931-241-0415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했습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매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췌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급매]
콜롬버스 조지아 지역 옷수선, 컴퓨터자수 드라이크리러 픽업 10만불 - 5만 9천불로 조정 T. 706-330-1978

N[매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매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키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매매]
치킨링,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웨딩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김우빈♥신민아 연상연하 커플 탄생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김우빈 신민아 양측이 열애를 인정했다. 연예계 또 다른 연상연하 커플이 탄생했다.

김우빈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배우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열애를 인정했다.

이어 "광고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친분을 이어오다, 최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앞으로 동료로서 또, 연인으로서 서로를 응원할 두 배우가 예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신민아 소속사 마더컴퍼니 엔터테인먼트 역시 "금일 오후 보도된 내용을 신민아에게 확인해 본 결과 두 배우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은 광고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친분을 이어오다 최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다"면서 "앞으로 동료로서 또 연인으로서 서로를 응원할 두 배우가 예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김우빈은 1989년 7월16일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 27세이며 신민아는 1984년 4월5일생으로 32세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5세로 연예계 또 다른 연상연하 커플 탄생을 알렸다.

reddgreen35@news1.kr



한고은, 4세 연하 회사원과 8월 결혼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배우 한고은이 8월 품절녀가 된다.

한고은의 소속사 지앤지프로덕션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고은씨가 8월 30일 결혼한다"면서 "예비신랑은 4세 연하의 회사원"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한고은씨와 예비신랑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의 교제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예비신랑의 따뜻하고 한결 같은 모습과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장점을 알아가는 모습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어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예비신랑과 양가 친지들을 배려해 결혼식은

친인척만을 초대해 소규모의 소박한 비공개 예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일 취재 및 촬영 협조가 어려운 점 미리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고은씨는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과 함께 배우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희 지앤지 프로덕션도 한고은씨가 좋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한고은씨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선 한고은씨에게 많은 사랑과 축복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lee1220@news1.kr

구하라, 섹시+달콤+몽환 솔로 데뷔 '성공적'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걸그룹 카라 구하라가 솔로 데뷔 신고식을 마쳤다.

구하라는 19일 오후 3시40분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타이틀곡 '초코칩 쿠키'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구하라는 탄탄한 복근이 드러나는 체크 무늬의 무대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태닝한 구릿빛 피부와 아찔한 섹시 퍼포먼스로 시선을 압도했다. 특히 몽환적인 음색이 더해져 섹시한 느낌이 배가됐다.

'초코칩쿠키'는 축축한 초코칩 쿠키를 연인과 나누어 먹는 모습을 그린 달콤한 가사와 순수한 듯 섹시한 구하라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힙합대세' 기리보이가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인기가요'에는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인피니트, 구하라, 걸스데이, 씨스타, 에이핑크, AOA, 갯세븐, 틴탑, 비투비, 마마무, 몬스타엑스, NS윤지, 앤화이트, 세븐틴 등이 출연했다.

aluem_chang@



설현, '오마말' 시즌2 마지막 촬영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설현이 KBS2 '오렌지 마말레이드' 시즌2 마지막 촬영 현장을 공개했다.

설현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진구, 시즌2 마지막 촬영 중 찍은 사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설현은 극 중 백정의 딸 백마리의 의상을 입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여진구 역시 미소 지으며 훈남의 면모를 드러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며

시즌2 마지막 촬영의 아쉬움을 달랬다.

누리꾼들은 "설현 여진구 훈훈하다", "설현 여진구 잘 어울린다", "설현 여진구 오마말 시즌2 아쉬움 달래주는 셀카네", "설현 여진구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설현과 여진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35분 방송되는 KBS2 '오렌지 마말레이드'에 출연 중이다.

poolchoya@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7월 13일 ~ 7월 19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4.4%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2.0%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울려)	20.7%
4	KBS1	KBS9시뉴스	16.6%
5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6.5%
6	MBC	무한도전	16.1%
7	KBS2	해피선데이	14.5%
8	KBS1	전국노래자랑	13.1%
9	MBC	일밤(복면가왕, 진짜사나이2)	12.5%
10	KBS1	가요무대	12.3%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2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울려)
4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5	SBS	월화드라마(상류사회)
6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7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8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9	SBS	드라마스페셜(가면)
10	MBC	복면가왕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와리가리	혁오 (hyukoh)
02	SHAKE IT	씨스타
03	Oasis (Feat. ZICO)	Crush
04	위잉위잉	혁오 (hyukoh)
05	PARTY	소녀시대
06	심쿵해 (Heart Attack)	AOA
07	주마등 (Feat. MI-WOO)	리쌍
08	IF YOU	BIGBANG
09	뱅뱅뱅 (BANG BANG BANG)	BIGBANG
10	링마벨 (Ring My Bell)	걸스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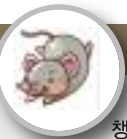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2					
9					5	1	8	
5	3	1				7		
					1	8	6	
7	6	3		9		4	1	2
	1	8	6					
		4				3	7	9
	9	7	8					1
					7			

7월 26일 - 8월 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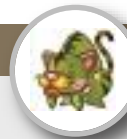
쥐띠 | 앞만 보고 뛰어가는

● 운수: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이에 깜빡 놓치고 있었던 것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 금전: 보편 사고 싶은 마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많이 다닐수록 지출이 늘어나니 꼭 필요한 곳만 가도록 하세요. ● 애정: 소개하는 사람의 말을 끝이론 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말아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7, 31일 길일. 26, 2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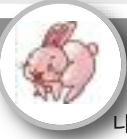
소띠 |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는

● 운수: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는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 금전: 대단한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신의 실수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침착하게 잘 살피도록 하세요. ● 애정: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재혼을 앞둔 경우라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신중해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8, 1일 길일. 27, 3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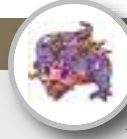
범띠 | 가까이 좋은 인연이

● 운수: 주변 환경의 변화나 변동수가 보입니다. 현재의 변화는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을 연결해 줄 것이니 움직여도 되겠습니다. ● 금전: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남을 도와주면 큰 보답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눈 높게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바로 가까이에서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6, 29일 길일. 28, 31일 주의.



토끼띠 | 삶의 활력소를

● 운수: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삶의 활력소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 금전: 남보다 두 배로 뛰어야 할 정도로 바쁘게 살 것입니다. 소득도 그에 비례해서 따라주니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은 사소한 행동에서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입니다. 애뜻한 말 한마디가 애정이 더 깊어지게 해줍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7, 30일 길일. 29, 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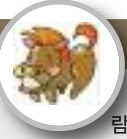
용띠 | 서서히 하나씩 정리하도록

● 운수: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주위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어수선하고 떠있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혀야 합니다. 서서히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6, 31일 길일. 29, 30일 주의.



뱀띠 |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 운수: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강해집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선택의 과정에 있는 것이니 용기를 내세요. ● 금전: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이제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차츰 안정되어 갑니다. ● 애정: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상대가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9, 1일 길일. 3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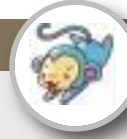
말띠 | 일정한 거리를 두고

● 운수: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얻는 것이 있고 보람이 있으니 힘든 일을 해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나날이 수입이 나아지게 됩니다. ● 애정: 이성 교제를 시작하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나도록 하세요. 쉽게 대하다 보면 심각한 관계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8, 30일 길일. 26, 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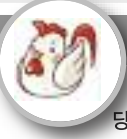
양띠 | 한 번 더 생각하는

● 운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인 것을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격이 될 수 있다.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도록. ● 금전: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감정에 사로잡혀 선부른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거래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 애정: 헤어졌거나 소원해진 남녀도 다시 이어지게 해주는 때.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에게 전화나 연락이 올 것임.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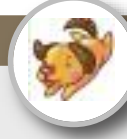
원숭이띠 |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 운수: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남이 가지 않는 길에 답이 있습니다. 남과 다르게 차별화를 주는 것이 큰 이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애정: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좋은 시기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1일 길일. 26, 2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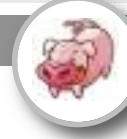
닭띠 | 적당한 휴식을 가져야

● 운수: 지나치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는 과로하기 쉬우니 적당한 휴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의 대우나 위치가 나아 집니다. ● 금전: 사업가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니 웃음 짓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끌림을 주는 시기입니다. 자신 있게 만남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8, 31일 길일. 26, 29일 주의.



개띠 |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과정

● 운수: 잠시도 쉴 틈이 없어서 몹시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소 힘들어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견뎌 나가야 합니다. ● 금전: 심사숙고해서 돈을 써야 하지만 작은 돈에 얽매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애정: 심리적인 갈등으로 생각의 변화가 많습니다.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돼지띠 |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 운수: 새로운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의욕이 샘솟고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주위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단, 지금은 지출이 많을 것입니다. ● 애정: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수록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전지현, 임신+'암살' 흥행 겹경사 누릴까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전지현이 영화 개봉과 동시에 임신 소식을 알렸다.

전지현 소속사 문화창고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소속 배우 전지현씨는 앞서 한 매체에 보도된 것처럼 현재 임신 10주차이며 내년초 출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지현은 결혼 이후에도 영화와 드라마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늘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 중이었으며, 최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소속사와 배우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감사하며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어 개인적인 일로 혹여라도 누를 끼칠까 염려돼 바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현은 현재 자신이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 홍보에 한창이다. '암살'은 1930년대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리는 영화로, 전지현은 독립군 대장 안옥윤 역을 맡았다.

현재 '암살'의 예매율이 54.7%(22일 오후 5시50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에 육박하는 만큼, 흥행 전망은 밝다. 더욱이 '암살'에서 직접 5kg 이상 무게의 총을 들고 연기하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을 펼

쳤기에 본인 스스로도 작품과 연기에 대한 만족도도 큰 편이다. 무엇보다 '암살' 홍보차 진행된 인터뷰 당시 흥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지현이 영화 개봉일과 더불어 임신 소식을 알린 만큼, 그가 겹경사를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물론, 이번 주말 내내 '암살'이 박스오피스 상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지만 이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과 '베테랑', '헛내, 칼의 기억' 등이 잇따라 개봉하기에 180억 대작이 여름 시장에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메가 히트를 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luem_chang@

김수현 이복동생 김주나, 숨겨진 가족사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김수현 이복동생 김주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그의 가정사가 갑작스레 공개돼 의문이 함께 커지고 있다.

김주나는 지난 22일 SBS 월화드라마 '상류사회' OST 곡을 발표했다. 이후 김수현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김수현 소속사 측은 김주나가 김수현의 이복 여동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주나가 김수현의 유명세를 빌려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

자 김주나 측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에 "아직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친구다. 홍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이슈화돼 부담스럽다. 김주나 본인도 놀란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이복동생 김주나의 가정사에 누리꾼들은 "김수현 이복동생 김주나, 뭐지", "김수현 이복동생 김주나, 왜 굳이 공개했나", "김수현 이복동생 김주나, 알 수가 없네" 등 반응을 보였다.

aluem_chang@news1.kr



tvN 측 "백종원 부친 논란? '집밥 백선생' 하차 논의 없다"

(서울=뉴스1) 명희숙 기자 = 백종원이 부친 논란과 관계없이 방송 출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tvN 관계자는 22일 뉴스1스포츠에 "백종원 부친 논란은 출연자의 개인적인 일이다. 녹화는 정상진행되며

하차에 대한 논의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백종원 부친 백승택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유성구의 한 골프장의 20대 여성 캐디를 골프장 근처로 불러내 가슴 부위 등을 강제로 만졌

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일부에서는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백종원이 하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reddgreen35@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i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지켜라' 강별, 애뜻할 수밖에 없는 극과극 가족애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가족을 지켜라' 강별이 가족에 대한 아픔을 드러내 애뜻함을 안겼다.

지난 21일 방송된 KBS1 일일 드라마 '가족을 지켜라' 9회에서 이해수(강별 분)는 옥탑방을 찾아온 아버지가 그를 걱정함에도 신경 쓰지 말라고 무뎠고 차갑게 이야기했다.

이후 해수는 병원 식당에 납품 업체가 결정돼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조리장의 말에 가족들을 떠올렸다. 직장에서 퇴출 당할 위험이 있는 파업은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함께할 수 없음을 안타

까워했다.

해수는 아버지의 재혼 이후에도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막상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오자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가 재혼한 가족과 자신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치킨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함을 드러내고 병원에서 파업을 진행한다는 말에 식구들이 있으니 안 된다고 거절하는 등 자신과 연관된 모든 일에 무조건적으로 옥탑방의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



다. 강별은 자신의 진짜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했지만 옥탑방 식구들에게는 친가족보다 더 뜨거운 가족애와 책임감을 지닌 모습으로 가족애를 그려냈다. ppbn@news1.kr

티보플레이 7월 3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2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3 | MBC | 여자를 울려 |
| 4 | SBS | 돌아온 황금복 |
| 5 | SBS | 상류사회 |
| 6 | MBC | 딱 너 같은 딸 |
| 7 | KBS | 가족을 지켜라 |
| 8 | MBC | 이브의 사랑 |
| 9 | SBS | 가면 |
| 10 | MBC | 복면가왕 |

티보플레이 7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KBS | 어셈블리 |
| 2 | KBS | 어 송포 유 시즌4 |
| 3 | KBS | 여야택시 |
| 4 | CJ E&M | 주문을 걸어 |
| 5 | KBS | 아이들의 세계 |
| 6 | KBS | 셀프모니터 시대가 온다 |

티보플레이 7월 3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무뢰한 | 전도연/김남길 |
| 2 | 나의 절친 악당들 | 류승범/고준희 |

류승범 · 고준희 주연 '나의 절친한 악당들'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임상수 감독의 신작 '나의 절친한 악당들'이 오는 6월 관객들과 만난다.

6일 배급사 이십세기포스코리아에 따르면 영화 '나의 절친한 악당들'(감독 임상수)은 오는 6월 국내 개봉된다.

'나의 절친한 악당들'은 의문의 돈 가방을 손에 넣은 지누(류승범 분)와 나미(고준희 분)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진짜 악당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류승범이 잘난 척하지 않는 지누 역을 맡아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매력을 선보이고 고준희가 착한 척하지 않는 나미 역을 맡아 거침 없는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류승범과 고준희 커플의 만남을 더욱 기대케 한다. 첫 번째 포스터는 먼저 진짜 악당이 되기로 결심한 지누와 나미의 강한 결의를 나타내며 총을 맞잡은 두 사람의 거친 손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다. 또 다른 포스터는 총을 겨누면서도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류승범, 고준희의 아이러니한 매력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두 사람의 환상적인 커플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인다.

'나의 절친 악당들'에는 MBC '일밤-진짜 사나이2', JTBC '비정상회담'으로 대세남에 오른 샘 오취리와 연기파 배우 류현경, 김우승, 정원중, 양이준, 김주혁 등이 출연한다.

aluem_chang@news1.kr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7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정상가: \$39.99)

7월31일까지 모든 신규 가입자 (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7월 시청료 무료

Clean Site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멀티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l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면적 포함. Asking \$1.95 Mil
- 3. Belmont 멀티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6. 브루클라인 콘도:** 1베드 1베스. 그라지 파킹 포함. 최상의 위치 및 학군. 주말 오픈하우스. 1731 Beacon St Brookline Unit 113. Asking \$499,900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동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독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독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 8. 헤어 액세서리 카트 매매:**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대형몰안, 좋은 위치, 안정적인 수입. Asking 55,000 인벤토리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07회

이제는 오랜 친구 같은 우리 부부...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지붕 아래에서 그리고 한 방의 한 침대에서 25년을 살았다. 어쩌면 길면 긴 시간일 게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 세대와 비교하자면 얼토당토않을 얘기지만, 요즘처럼 이해타산을 따지고 싫고 좋고가 분명한 시대에 25년이란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가족 다섯이 함께 모이는 일이 벌써 점점 어려워져 간다. 가끔 힘들게 다섯 가족이 모이면 세 아이에게 장난스레 던지는 엄마의 말이 있다. 25년을 넘도록 살고 있으니 가끔은 지루한 생각이 든다고 말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화들짝거리며 웃음으로 답을 해준다.

연년생인 세 아이를 정신없이 키우며 살아온 날들 생각해 보면 정말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허덕거리며 달려왔다. 지난해 5월 막내 녀석이 대학 졸업을 마친 후 어깨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마음으로 많이 버거웠던 시간이었나 보다. 막내 녀석이 졸업했다고 해서 내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마음이 든 시간에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곁에 있어 모든 것이 가

능했던 일들임을 알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아픈 시간을 떠올리며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날이었다.

딸아이는 대학원(교육학)을 졸업하고 8월 1일부터 보스턴 시내의 중·고등학교에서 8학년을 맡아 미국역사를 가르치게 되었다. 5월에 대학원을 졸업하며 직장(Job)을 얻기 위해 몇 학교에 이력서를 넣어놓고 딸아이가 노심초사 걱정이 많은 것이다. 답을 기다리며 걱정에 있는 딸아이를 보면서 안되더라도 괜찮다고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 걱정 말라고 얘기를 해주었다. 그렇지만, 처음 사회에 발을 내놓고 정식으로 선생님의 길을 시작하려는 아이에게 이번에 불합격이 되면 큰 실망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 엄마는 더욱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되었다.

아빠인 남편도 딸아이가 결과 발표가 있기 전, 은근히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다른 잡(Job)들과는 달리 학교 선생님의 T.O 자리는 많지 않아 일자리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겠다고 얘길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내심 걱정이 일기 시작했으니 당사자인 딸아이의 심정이 십분의 일 이해가 간다. 그리고 한참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단다. 열심히 그리

고 성실히 공부하며 노력해왔던 딸아이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눈물이 핑 돌았다. 딸아이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만큼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으며 두 남동생과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큰 기쁨이었다.

이렇듯 하나둘 아이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 고마운 일이다. 자식에게 있어 부모의 역할이 어디가 끝일까마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가면 그것으로 고마운 일인 게다. 큰 녀석도 로스쿨 1년을 남겨 놓고 있다. 지난 1월에 프랑스에 가서 7개월 머물러 공부를 마치고 엊그제 보스턴으로 돌아왔다. 보스턴에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학교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어 쉬지도 못하고 일을 시작하고 말았다. 남편보다도 더 남편 같은 큰 녀석은 엄마에게 믿음직스럽고 편안한 자식이면서도 때로는 남편보다도 더 어려운 자식이다.

막내 녀석도 뉴햄프셔에 있는 썸머 캠프장에서 카운슬러 대학생들만 200여 명이 된다는데 그 대학생들의 대장(팀장/Director)이 되어 재미있게 보내고 있다. 내년 가을에는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니 이 녀석만

제 같길게 마련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더욱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니 25년이란 세월이 그냥 무심히 지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정신 없이 보낸 세월 속에 서로의 기쁨과 행복과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까지도 함께 뒤섞여 있으니 말이다. 세 아이를 키우며 그 아이들로 기쁘고 행복하고 때로는 그 아이들로 부부가 싸운 일도 참으로 많지 않았던가.

이제 25년을 살다 보니 남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방귀 실레도 가끔 하기도 하고 남편 역시도 아내 앞에서 껌껌거리는 트림을 생각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 이제는 서로 감추며 챙기는 예의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마주하니 편안해 좋긴 하다. 물론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참아주기를 바라는 서로의 마음은 남겨놓은 채로 말이다. 이제는 아이들도 각자의 인생 여정을 좇아 제 갈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 우리 부부도 무엇보다도 서로 각자의 건강을 챙기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5년을 넘게 함께 살고 있으니 이제 우리 부부는 편안하고 오랜 친구 같아 좋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개여울**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개여울, 김소월)

노래에서는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처럼 읽힌다. 듣고 읽으면서 받은 인상이자. 개여울가는 고즈넉했을 것인데, 나무잎 몇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진다면 그림이 된다. 햇살은 꽃힌다만, 그들은 서늘했을 게다. 이끼긴 작은 돌위에 앉아 있을 것이고, 버선 벗은 발은 오히려 희어서, 애처로울 지도 모른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길떠났던 낭군을 기다리 십니까. 돌아온다던 약속의 말을 믿는가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이 있다. 한국에서 오래전 유행했고, 저마다 무대에 올랐다. 고도라길래, 사람 살지 않는 심해고도孤島인가 했다. 아차, 사람이름이란다. 고도Godot 씨를 기다리는 거다. 하도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거린다. 그런데, 뭐 뚜렷이 무슨 일이 있어서 고도氏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지 싶다. 이제는 Mr. Godot대신 누구를 기다리는가. 개여울에 주저 앉아 기다리는 실체는 무엇인가

말이다. 꽃 피는 봄인가. 봄이 지나 간지 얼마나 되었다고 기다리는가? 내 일터 앞에도 시냇물은 흐른다. 하지만 시냇가 물은 한여름에도 무지 찰 것이다. 그러니 애써 발을 벗고 앉을 엄두는 내지 못한다. 막상 기다리는 것도 없으니 말이다.

기다림과 외로움은 서로 멀지 않아 구별하기 어렵다. 시인과 문학하는 사람들만 외롭게 기다리는 건 아닐 게다. 인생은 외롭고 끊임없는 기다림이라고 누군가 말했으니 말이다. 하긴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아 실망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그건 더 절망스럽다. 그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신영각 선생의 팔순잔치가 열린다. 그의 건강과 강필剛筆을 기원한다. 그의 더욱 활달한 문장을 기다린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사도신경 1:4)

유홍준인가. 시인 신경림이 말했던가. 영랑의 시는 아름다운데, 노래로 만들어 진게 드물단다. 영랑의 시는 이미 노래이기 때문이란단다. 남도南道 음률이 시詩 안에 녹아있으니, 노래에 음률을 덧 씌우는 꼴이 된다는 말이다. 이 유가 매우 그럴듯 하다. 시인이 노래 할 적에 전문가들은 애써 해석한다. 역시 전문가는 말도 잘한다.

시인과/달팽이와/마누라는/거품을 토해내는 동족同族 (최명랑, 동족)

개여울이란 노래를 기억 하시는가. 키가 훌적 큰 여가수가 부른 노래다. ‘이대 나온’ 여가수였다. 실은 이 노랫말은 여느 가요 작

사가가 작사한 곡으로 알았더라. 현대, 노랫말이 역시 소월스럽다. 소월의 시 답게 노랫말이 탁월하다는 말이다. 소월의 시에 대해 이 령쿵 저령쿵, 아는체 건방짐이 하늘을 찔렀다.

당신은 무슨 일로/그리합니까?/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 포기/가/돌아 나오고/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않노라 시던/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나와 앉아서/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않노라 심은/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ALL THINGS HALLYU

Presented by **TOYOTA**
Let's Go Places

북미 최대의 한류 컨벤션 x 콘서트!
NY 8월 8일
Prudential Center, Newark NJ

- AOA • Girls' Generation
- Teen Top • VIXX
- and more special guests!

티켓 절찬 판매중! KCONUSA.com

부스 모집중 Contact: 212 574 4414

PRODUCED BY: CJ E&M, Mnet

PRESENTED BY: TOYOTA Let's Go Places

TECHNOLOGY SPONSORS: verizon, LG

OFFICIAL SPONSORS: IOPE, CJ SHOPPING, CJmall, KUMHO TIRE, b'ib'igo, DRAMAFEVER, com2us, ASIANA AIRLINES, TOUS les JOURS, 4DX, McDonald's, NONGSHIM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4.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경쟁 (2)

비버 전쟁(1640-1701) (계속)
이 전쟁은 1638년에 시작되어 60년 이상 지속되다가 1701년 몬트리올 평화협정 체결로 끝났다. 이 전쟁은 북미 원주민간의 다툼 중에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최대 규모 중의 하나로서 이로쿼이 연합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오하이오 주 등 8개 주를 아우르는 본래의 영토의 열배 이상의 땅을 차지하여 지역 맹주의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 전쟁에서 패한 인디언들중 상당수는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한 예로 훗날 대평원의 전투부족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수우족도 이때에 이로쿼이 연합에 밀려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옮겨갔다.



〈인디언의 주요어족〉

이로쿼이 연맹
동부 지역에서 시작된 영국의 식민지 개

척이 점차 서쪽의 삼림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인디언들의 삶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인디언 부족들은 사냥감들이 점차 고갈되어가자, 굶주림을 참아야 할지 아니면 전쟁을 벌여야 할지 또 아니면 서쪽으로 이주해서 그곳의 다른 부족과 갈등을 빚어야 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펜실베이니아와 뉴욕 북부 지역에 살던 이로쿼이 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유럽인들의 진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그들의 침범을 막았다. 1570년에 이로쿼이의 다섯 개 부족(Mohawk, Onondaga, Oneida, Cayuga, Seneca)이 참가하였는데 1722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살던 Tuscarora 부족이 그곳 영국식민지와 전쟁에 패한 후 옛 고향으로 돌아와 이로쿼이 연합에 합류하였다. 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일종의 민주적인 형태의 연방국가를 형성했다. 이 동맹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 부족의 대표자로 구성된 50인 협의회가 운영되었다. 연맹 소속 부족의 공동 관심사는 반드시 이 협의회를 거치도록 했으며 살인등의 중대사를 다루는 공동의 법도 제정했다.

동맹은 17세기와 18세기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비버 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 영토를 크게 넓힘으로써 네덜란드와 영국과의 모피 무역을 주도했으며, 18세기 중엽 영국과 프랑스가 북미대륙 식민지 지배

권을 두고 전쟁을 벌일 때는 영국 편을 들기도 했다. 그 후로 영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폰티악 전쟁에서도 인공 인디언 부족 대부분이 영국군에 맞서 싸웠으나 이로쿼이 연합은 영국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로쿼이 연합은 미국의 독립전쟁 전까지는 단단히 유지되었지만, 독립전쟁이 발발하면서 내부 균열이 발생하였다. 부족별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각 부족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로 했고, 결국 Mohawk, Onondaga, Cayuga, Seneca는 영국 편을 들었고 Oneida, Tuscarora는 독립전쟁을 벌린 식민지 편을 들었다.

이로쿼이연맹은 지금도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부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미국과는 별개로 인디언의 전통 구기종목인 라크로스(lacrosse) 국제 경기에 독자적으로 선수를 파견하기도 하고, 미국 정부 여권과는 별도로 그들 부족



〈이로쿼이 부족의 전통가옥 롱하우스(longhouse)〉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기도 한다. 또한 1,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에 대하여 주권국가 자격으로 선전포고를 한 적도 있다.

남동부지역 원주민과 유럽 정착민과의 갈등

버지니아의 남쪽에 위치한 캐롤라이나 지역에서의 식민지 건설은 1600년대 중반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이 지역에는 투스카로라(Tuscarora)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50년 이상 유럽 이주민들과 큰 충돌 없이 비교적 사이좋게 지내왔다. 그러나 170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의 땅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심지어 원주민을 상대로 노예 사냥까지 일삼게 되면서 원주민들이 정착민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투스카로라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은 1711년부터 1715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투스카로라 부족 중 많은 수가 사망하거나 노예로 팔렸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이로쿼이어족인 이로쿼이 연합 부족이 살고 있던 뉴욕 북부로 옮겨가 기존의 다섯 개 연합국가에 이어 여섯 번째 연합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90 창무관의 창시자 윤병인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남(통영과 거제)에서 지방수령을 하였는데 '을사조약' 후 일본의 조선 강점의 강도가 더해지자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이주하였다.

정통무도인으로 정평이 나있는 윤병인은 어릴 때 만주를 유랑하면서 중국무술의 일파인 '주안파' 를 수련하였다. 그리고 1938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였다. 그는 니혼(일본)대학교에서 1941년까지 농학을 전공하였다. 그때 가라데(공수도)를 배웠으며, 당시 그 학교에는 일본 가라데의 달인 도야마 간켄이 있었다. 도야마는 윤병인의 중국무술을 보고 한 눈에 매료되었으며 그 후 서로의 무술 기량을 교류하면서 우의를 다졌다. (도야마 간켄도 1924년 타이완에 건너가 타이베이 등지에서 7년간 중국권법을 수련하였다. 아마도 동질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윤병인의 무술 성취도가 매우 좋아서 곧 가라데 4단이 되었고 다니던 일본대학에서 일본인들을 제치고 가라데부 주장을 하였다. 물론 도야마 간켄이 윤병인을 승단시켰으며, 당시 도야마가 5단이었던 점으로 보아 대단히 파격적인 승단(인정)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현대사' - 강원식, 이경명 공저 에는 5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에는 조선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

었는데, 도야마 간켄에게 배운 조선인 제자로 김기환(1921 - 1993)과 윤쾌병(1923 - 2005) 등이 있다. 김기환은 윤병인의 대학후배로 같이 수련하면서 윤병인의 무예를 전수받기도 하였고, 대구에서 연무관을 운영하다가 미국(Washington D.C. 지역)으로 이민하여 도장을 운영하면서 제자들을 키웠다.

1945년 일본에서 돌아온 윤병인은 경성농업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곧 경동고등학교로 옮겨갈 때는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역임)이 그에게 권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던 전상섭의 조선연무관에서 잠시 운동을 하다가 1946년 9월1일 서울 종로의 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권법부를 창설하고 제자들을 지도하였으며, 이것이 후일 이남석과 김순배에 의해 개명된 창무관의 전신이다. 그는 자신이 만주에서 배운 '주안파' 와 일본에서 수련한 공수도를 혼합한 독특한 무술을 제자들에게 수련시켰다. 즉 각각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체격조건에 맞게 지도하였으며, 지도방법은 많은 말이 없이 기술을 직접 보여주면서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제자들은 회고한다. 처음에 YMCA에서 도장 문을 열었을 때는 그의 실력에 매료되어 500명이 넘는 관원

들이 모였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정통무도의 엄격함에 견디지 못하고 많은 관원들이 떨어져 나가서 3개월 후에는 180여명이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크기로서 수련한 남은 제자들은 그들이 달성한 무도의 경지뿐만 아니라 후일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뿌리 내리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6.25 와중에서 창시자 윤병인이 남북되면서 130) YMCA권법부는 혼란속에서 갈등을 빚다가 이남석과 김순배를 중심으로 창무관(彰武館)을 창설하였고, 홍정표와 박철희를 주축으로 한 강덕원(講德院)을 창설하면서 건설적으로 분열되었다.

129) 무카스(MOOKAS)에서 재인용, www.kimsookarate.com 참조

130) 윤병인의 만형 윤병두는 북한의의용군으로(1946 - 1950) 있었다가 1950년 8월 유병인에게 나타나 월북을 종용했는데, 어떠한 연유로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제자인 김주호, 이동주와 함께)을 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 개인면담을 통해 남과 북의 선택권이 주어질때 윤병인은 북으로 갔다. 그는1983년 4월 3일 폐암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하였다.



브라이트 소재 저렴한 기숙사

무술 연마와 기숙생활 함께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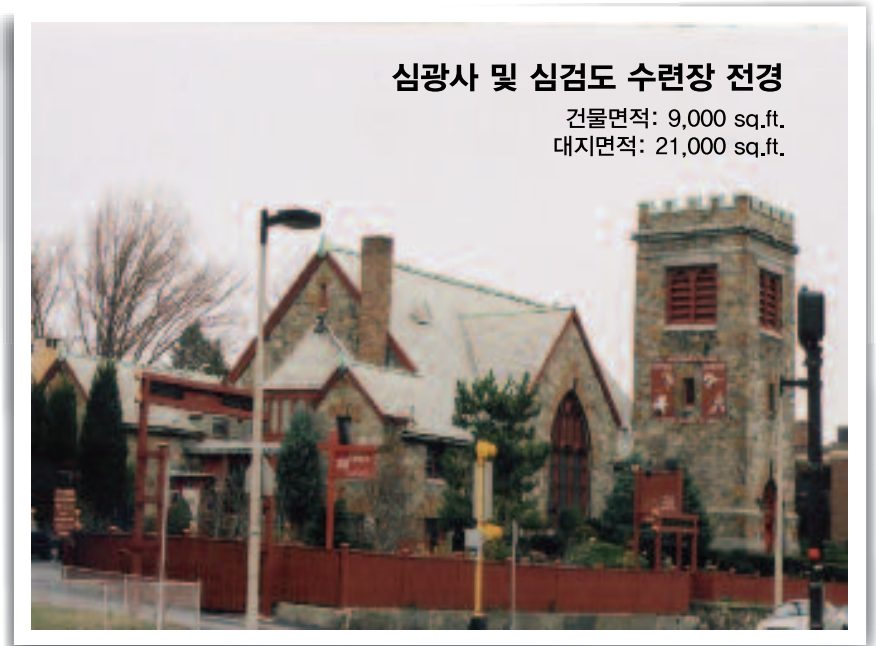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20분 예불후 조식, 각자 학교 및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각자의 종교 생활(기독교, 천주교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 \$950

조식, 석식 및 수련비 월\$120 포함

단기숙박 가능: 3개월(월\$1,200), 6개월(월\$1,100)

- 주차 가능 (월 \$100 주차비)
- 실검도 18개월 수련후 단증 수여
- 매월 첫째 금요일 저녁 6시-7시 30분 무료 참선
- 전화 연락후 상시 방문 가능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오픈 하우스)
- 전화번호: 617.787.1506



심검도 창시자 김창식 (원광 스님)
41년째 심검도 전수 및 제자 양성

심검도 회원 모집

심검도 검법, 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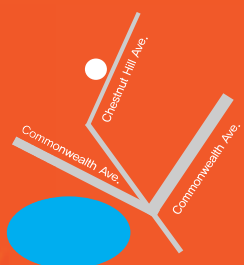
종교와 관련없이 수련 가능
(불교 신앙 생활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수련비: 성인 월\$120, 어린이 월\$75
성인18개월, 어린이36개월 수련후 단증 수여

수련 시간

어린이: 화,목요일 오후 5-6시(신법)
수요일 오후 5-6시(검법)
토요일 오전 9-10시(검법)

성인: 월-목요일 오후6-7시30분(검법,신법)
토요일 오전 10-12시(검법,신법)



617.787.1506

203 Chestnut Hill Ave. Boston, MA 02135
www.shimgumdo.org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뒤통수’ 를 친 이유라도 알려주면, 안되는 거니?
-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 길 XI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누군가를 약 올리고 싶다면, 뒤통수가 최고다. 누군가를 휘청거리게 하고 싶다면, 뒤통수를 세계 치면 단 번에 쓰러진다. 실제로 사람의 뒤통수는 후두엽과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모여있는 부분으로 급소에 해당한다. 잘못 치면, 생명에 지장이 올 수도 있다. 마음으로도, 직접 손이나 흉기로든 뒤통수를 한번 맞아 보았다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알 것이다. 하지만 차라리 손으로 직접 맞는 뒤통수는 아픔을 직접 느끼고 상처를 볼 수 없기에, 마음으로 뒤통수를 맞는 것에 비해 치유도 빠르고 상처도 빨리 아무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뒤통수의 행동이나 말은 은밀하다. 뒤로 공격이 가해 오는 상황이다 보니, 딱히 무엇이라 잡아내기도 힘이 든다. 그런데 기분이 무척 짹짹하다. 자신에게 상냥하게 예의를 지켜 말을 하는데 왜 마음에 갈등이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더구나, 관계의 끝에 뒤통수의 펀치를 날리고, 뒤통수를 왜 쳐야했는지 물어보려 연락을 했는데 조가비처럼 입을 꼭 다물고 무시한다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불을 식히려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미세스 한은 큰 아들의 복통이 심해지자, 원인이 밝혀져 온갖 의료 검사를 했다. 소아과의사는 ‘정신신체증후군 (Psycho-Somatic)’ 에 의한 복통이라 진단을 했고, 병원 소설위커는 테라피 치료를 요청했다. 미세스 한은 큰 아들의 정신신체증후군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 안에 복종하는 아이가 ‘수동공격성 (Passive-Aggressive)’ 성향을 갖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들의 ‘정신신체증후군’ 과 자신의 ‘수동공격형’ 의 연관성이 점점 더 드러나면서, 미세스 한의 ‘수동공격성’ 은 필자에게 대체되어졌다. 겉으로 드러난 폭력성장애가 아닌, 감추어진 심리적 폭력성의 ‘수동공격성’ 의 환자의

치료는 많은 인내와 이해를 요구한다. 이미 고착화된 사람에 대한 불신과 깊은 상처는 왜곡된 진실을 진실이라 믿고 살아왔기에, 진실 앞에서 자기 방어로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미세스 한은 자라면서 어른 앞에서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억압하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다. 그녀의 가족은 상하 관계의 서열에 민감했고, 부모 앞에서 무조건 복종이 요구되었다. 여섯 형제 중 셋째 딸로서 그녀의 부모가 복종을 하지 않고 대드는 큰 형제들에게 심한 꾸지람과 구타를 가하는 것을 보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여린 그녀는 부모님의 언성이 높아져도 불안해 지곤 했다.

그녀는 부모가 시키는 일은 싫던 좋던 무조건 순응했고, 부모의 기분 상태를 알아차리는 눈치가 빨랐고,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며 자랐다. 부모와 의견이 다를 때는 부정하기도 반항하기도 않으면 되었다.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위기가 잘 넘어갔다. 형제 많은 틈에서 부모의 관심을 차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형제들은 소극적인 그녀를 항상 놀리며 무시를 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녀를 조종하며 이용했다. 부모에게 형제들의 행동을 이야기 해보았자, 형제들이 보복으로 자신을 더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해 입을 다물곤 했다.

셋째 딸이라는 이유로 대학도 포기를 해야 할 때에도 그녀는 불만을 힘들게 누르며 참아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리 사원일을 하며, 어렵게 야간 대학에 합격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상의하며, 자신의 월급을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부모는 무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뒷전에서 형제들에게, 그녀가 이기적이어서 집안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도울 생각을 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이라고 핀잔을 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은근히 더 멀리하기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녀가 나타나면, 갑자기 침묵을 하며 그녀를 왕따로 만들곤 했다.

자신의 의견이나 본심을 솔직히 드러내면, 자신이 더 상처받고 피해를 입는다는 믿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면서,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져갔다. 그녀의 분노의 표출의 방법이 남몰래 은근슬쩍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대체되어 가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마음에 안드는 일이 있으면, 일단 속내를 감추고 있다가 상대방의 약점의 파악이 끝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상대방이 화내기에는 애매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무안을 주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면, 웬지 모를 쾌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속으로 느끼는 시기와 증오, 적개심을 은근히 비꼬는 말투의 칭찬으로 표현하면서, 상대들이 기분이 나빠도 따질 수 없게 했다. 상대가 따지려고 하면, 회피와 무시로 관계를 정리하곤 했다. 그러면 속이 후련해졌다. 하지만 깊은 인간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외롭고 불안했다. 관계를 계산적으로 하다보니 늘 긴장하며 살아야 했다.

미세스 한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종당하는 경험이 고착되었고, 건강하게 화를 내는 법을 억압당해 오면서 ‘수동공격형’ 의 인격장애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녀의 수동공격형 성향은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곤 했다. 그녀의 상사에게 불만이 생기면 상사를 복수하는 방법으로, 상사가 지시한 것을 교묘한 핑계를 대면서 일부터 미루거나 보고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메일을 통해 은근히 모함도 했다. 해고를 시킬 명분은 명분은 피해가면서,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공격의 칼

날을 겨누었다.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하면서 회사를 그만 두었다. 회사를 관두면서 업무와 관련한 자료들을 은밀히 없애버렸다.

결혼 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아이들을 동원해 남편을 수동적으로 공격했다.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약점을 농담을 하는 척하며 무안을 주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치면 농담도 못 넘기는 줄장부라고 심리적인 폭력을 했다. 남편이 없을 때 아이들에게 남편을 흉을 보며, 아이들로 하여금 남편을 무시하게 했다. 남편은 자신의 고립을 일 중독으로써 대처했다. 항상 집안 분위기는 불안하고 위태했다.

큰 아들이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무조건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며 자신을 필요로 하던 큰 아들이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이유를 물으면, 아들은 그녀와의 대화를 더욱 기피했다. 그녀는 큰 아들의 생활에 일일이 더 간섭을 시작했고, 큰 아들은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치료를 위해 수동공격현상을 필자로 대체시켰다. 그렇게 되면서 큰 아들의 정신신체증후군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미세스 한은 뒤통수를 치는 대신 직접 필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그녀의 부모, 그녀의 상사, 그녀의 형제, 그녀를 뒤통수쳤던 대상으로 전이 되면서, 그녀는 뒤통수가 아닌 직접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뒤통수는 어쩌면 가장 애를 먹이는 공격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이 은밀한 공격이 습관이 되면,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심리적인 폭력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자신 또한 행복해지기가 힘들다. 자신이 수동공격형의 성향이 있다고 느낀다면 전문가의 치료를 권장한다. 뒤통수는 다음 세대로 전이될 수 있고, 뒤통수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반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Summer 2015 Program
Sign Up Now!

Essay Writing Workshops: Middle and High School

Make essay writing easier for you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Enroll your student in a ReadWrite essay workshop where students study the elements of a quality essay and prepare, write and revise up to two essays in class.
Monday to Friday 9:00 to 11:00 AM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150 per week/ \$125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Summer Days Program: Grades 3 to 8

Our Summer Days program offers kids summer fun while they continue to build their reading,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skills. In between outdoor activities and creative projects, kids read, discuss readings and write related essays.
Monday to Friday 9:00 to 3:00 PM
Before care and extended day options available.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270 per week/ \$250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Weekly Year-Round Classes: First Grade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practice essay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and reading skills in a small class. Students improve writing skills by drafting, revising and polishing persuasive essays, opinion pieces, narratives and more. Our curriculum and class size are structured for open enrollment, and ensure that each student's needs are met. Classes are held year-round.
Class schedules can be found at: <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
Classes: (Grades 1-12)
• Reading/Writing Workshop (1-4)
• Literary Analysis (5 to 8)
• Expository Analysis (5 to 10)
• Intensive Essay Writing (High School)
• Tutoring: SAT, ACT, ISEE, SSAT

전지현 · 이정재 · 하정우 그리고 <도둑들> 최동훈 감독
모두를 흥분시킬 최강의 화제작이 온다!



★★★★★

압도적 예매율 1위!
박스오피스 1위!

최고의 이야기꾼 <도둑들> 최동훈 감독의 '핫'한 차기작!
초호화 캐스팅! 캐릭터 자체가 된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열연!
제작비 180억! 블록버스터급 스케일과 화려한 볼거리!

ASSASSINATION

8월 7일 대개봉

REGAL Cinemas Fenway 13 & RPX

201 Brookline Ave, Boston, MA 02215

Tel. (617) 424-611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WWW.ASSASSINATION-THEMOVIE.COM  HITKMOVIE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91)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ETF

일반 투자자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Exchange-trade funds, ETFs)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뮤추얼 펀드(Mutual Fund):

일반 투자자가 어떤 특정한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선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이나 운용하는 자금 그리고 정보력에 대해서도 전문가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뮤추얼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합니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돈으로 앞으로 유망한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특정한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므로 액티브 투자(active investment)라고 말합니다. 물론 투자하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평균 경비는 1.33%라고 합니다.

뮤추얼 펀드에는 펀드 회사가 부과하는

경비 외에 재정설계사가 받는 수수료(load)가 있는 뮤추얼 펀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약 5.65%로 매우 높습니다.

인덱스 펀드(Index Fund):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가가격이 올라갈 유망한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특정한 인덱스(지수)를 설정하는 모든 회사에 투자합니다. 미국에서 큰 회사를 대표하는 지수는 S&P 500 인덱스이고 미국 500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500대 기업의 순위는 Apple, Microsoft, Exxon Mobile, Google, Johnson & Johnson, GE, 등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없습니다. 매니저를 도와주는 주식 분석가(stock analyst)도 없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회사 주식 규모로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 투자는 패시브 투자(Passive Investment)라고도 말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매니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봉급이나 의료 보험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

니다. 투자 경비가 적은 이유입니다. 평균 경비는 0.74%라고 합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에 포함된 500개 회사는 주식시장을 대표하므로 여기에서 나온 수익률이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뮤추얼 펀드를 평가하는 회사(S&P Dow Jones Indices has studied)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면, 특정한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80%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보다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입니다. 작년 한 해만은 86%의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보다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상장지수 펀드(Exchange-trade funds, ETFs):

상장지수 펀드나 인덱스 펀드는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예로 인덱스 펀드인 Vanguard 500 Index나 상장지수 펀드인 SPDR S&P 500 ETF나 투자되는 종목은 미국 500대 기업입니다.

뮤추얼 펀드는 주식시장이 오픈된 어느

시간에 사고팔아도 실제 거래되는 시점은 주식시장이 마감되는 시간입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회사를 통해서 사고팔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면 상장지수 펀드는 회사 주식처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바로 성립됩니다. 상장지수 펀드의 시장이 매년 놀라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최대한 저렴한 투자경비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평균 경비가 0.52%입니다. 뱅가드 회사의 ETF 경비는 약 0.15% 정도로 더욱 저렴합니다.

Wells Fargo나 J.P. Morgan과 같은 거대한 금융회사는 ETF 종목을 작년(2014)에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투자자들의 돈을 ETF에 투자하면 회사가 돈을 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년부터 ETF를 시작했을까요? 투자자가 ETF 종목을 제공하는 다른 회사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재정설계사는 왜 나의 소중한 돈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꼼꼼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 시 적용되는 무유언 상속법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오늘은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시 적용되는 뉴욕 주와 뉴저지 주의 무유언 상속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보편적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류로 여겨지지만, 그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법원에서는 약 33%에 달하는 상속 건이, 유언장이 없을 시 적용되는 무유언 상속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법률용어로는 Intestate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유언장이 없을 때에는, 고인의 미망인에게 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시 적용되는 각 주의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산 상속법은 비교적 '균일화된 상법 (Uniform Commercial Code)' 과는 달리, 각 주의 상속법 균일화 및 평준화를 위해 제시된 '통일 상속법 (Uniform Probate Code)' 이 여러 주에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각 주마다 무유언 상속시 누구에게, 어떤 금액의 재산이 분배되는가의 차

이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경우에도 무유언 상속법 케이스들을 진행하다 보면 매우 근접한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도 분배법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인 John Smith씨가 자손은 없지만, 미망인 Sarah Smith씨와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뉴욕 주의 법이 적용된다면, 고인의 무유언 재산 전체는 미망인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뉴저지 주에서는 미망인과 부모님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배우자가 \$50,000~\$200,000 범위내에서 무유언 재산의 첫 25%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나머지 재산의 1/4는 부모님에게, 3/4는 미망인에게 분배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로 고인에게 미망인과의 사이에 성인이 된 자녀들 Tom, James, Laura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때 뉴욕 주에서는 미망인이 첫 \$50,000을 받고, 나머지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습니다. 그 후 그 나머지 재산을 3명의 자녀들이 각각 1/3씩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뉴저지 법이 적용된다면 미망인이 무유언 재산의 전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Tom, James, Laura는 뉴저지

법상 "무유언 상속분" 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고인과 미망인과의 사이에 자손은 없지만, 고인에게 그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Paul이 있다면 앞의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뉴욕 주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앞서와 같이 미망인은 동일한 상속분을 받습니다. 대신 나머지 무유언 재산 전액은 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뉴저지 주에서는 미망인의 상속분이 크게 차이 나게 됩니다. 미망인은 앞서 전부를 받는 것과 달리, 이 경우에는 \$50,000~ \$200,000 한도내의 무유언 재산의 첫 25 %와 나머지 금액의 절반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모두 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Paul의 몫입니다.

이렇게 뉴욕 주와 뉴저지 주의 무유언 상속법이 차이가 있다 보니, 종종 저희 로펌으로 본인의 케이스가 어느 주의 법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이러한 고객분들은 고인이 여러 주에 부동산 및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시거나, 고인의 직장, 돌아가신 장소, 무유언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의 거주지가 타 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고인의

domicile ("거주지")이 기준이 되어 그 주의 법이 적용됩니다.

무유언 상속법은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을 경우뿐 아니라, 유언의 일부나 전체가 무효화된 경우, 유언에 포함된 재산 분배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만약, 고인이 생전에 유언도 남기지 않았고, 무유언 상속법에 포함된 재산 분배 대상이 되는 친척이 전혀 없다면, 그 재산은 누가 갖게 될까요? 그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고인의 무유언 재산은 법적으로 주 정부에게 가게 됩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보스톤 한인회 “신명나는 한인사회 만들기 제2탄”



Let's go! 보스톤 한인회

광복 70주년 기념

한미 연합 체육대회 & 야유회

본 행사는 한인사회가 중심이 된 한미 커뮤니티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보스톤한인회에서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하나되는 보스톤 한인사회를 위해 한인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한인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하여 하나되고 함께 나누어 행복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해방둥이(45년 생) 특별초청

광복 70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에 45년생 해방둥이를 특별 초청하오니 모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기념행사 만세삼창 선창)

참가자 전원에게 절전형 LED전구와 멀티탭을 드립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한미 연합 체육대회 & 야유회

일시 : 2015년 8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부터

장소 : Arsenal Park (485 Arsenal St. Watertown, MA 02472)

참가신청 : 781-933-8822 / 617-750-0207

haninhoebo@gmail.com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이란핵 합의와 전망

드디어 이란 핵무기 합의가 이루어졌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P5+1) 이란을 상대로 한 16개월에 걸친 파리 협상 결과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악의 축(이란, 북한, 북한)의 하나인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다. 합의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일이다.

양쪽 다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경제 봉쇄로 이란은 해외자산 1,000억불이 동결되고, 석유수출이 막혀 국가 재정의 50%에 상당한 300억불의 외화소득을 잃고, 화폐 가치가 80% 떨어지고, 생활필수품의 고가로 국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적시에 온건파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미국은 이란의 조만간 굴복을 예상했으나, 오히려 핵능력을 키워, 2-3개월 안에 핵 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위기를 의식하게 되었다. 이란 핵무기 보유는 돌이킬 수 없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대 과오다. 이스라엘의 돌발적인 군사행동(이라크와 시리아를 공습을 한 전력에 있는)으로 인한 중동의 전쟁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었다. 또한 적이라 할지라도, 강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추구가 최선이라는 오바마의 정치철학이 인내의 장기 협상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란만 경제손실을 입은 건 아니다. 미국은 1,500억불의 수출감소로 60,000이 직장을 잃었다 (1995-2012). 서민은 휘발유를 10% 비싸게 사야하는 댓가를 물어야 했다.)

합의 핵심은 이란 핵무기 보유 능력을 향후 10-15년간 저지하는 것이다. 즉 농축 능력 제한(원심분리기 6100기 이하 한정), 저농축우라늄 보유량 한정 (300KG 까지), 우라늄 채광부터 폐연료봉 국외 반출까지 전 공정 24시간 감시, 의심되는 지역의 24일 이내 검증, 평화적 용도에 쓰일 저농축 우라늄 생산 인정 등이다. 반면 이란이 합의의 주요 사항 이행시 석유수출과 금융 봉쇄를 2015년 내에 푼다는 것이다. 불 이행시에는 경제봉쇄를 즉각 재 실시하는 것이다.

여론은 56%가 합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란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에 기반을 둔 것” 으로, 이란 핵무기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오바마는 주장한다. 또한 “중동에서의 전쟁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

로 호전적인 공화당은 합의 파기를 주장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합의는 “이스라엘의 죽음” 이라고 단언하는 대통령 후보도 있다. 다른 공화당 후보는 “당선되면 취임 첫날 이란과 전쟁을 하겠다” 고 공언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이란은 핵을 무조건 일절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봉쇄의 족쇄가 풀리면 이란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동에서 강국으로 성장하면 중동이 불안해 진다는 것이다.

“합의서” 가 최종적으로 정립되려면 미 의회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한다. 의회는 합의내용을 60일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극력 반대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임으로 입법을 통한 제동을 걸 것은 불 보듯하다. “역사적 과오” 라고 선언한 이스라엘 네타냐우 수상도 미 의회 로비는 막강할 것이다. 반면 오바마는 제동 입법안은 비토하겠다고 미리 침을 놓고 있다. 비토된 법안이 자동입법 되려면 의회에서 2/3의 찬표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도 공화당에 동조하고 있어 오바마는 이를 저지할 1/3선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9월로 예정된 표 대결에

서 판가름 날 것이다. 미의회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우려하는 점은 과연 이란과 미국이 합의 내용을 장기간 진지하게 준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란의 과거를 보아 속임수를 쓸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않다. 반면, 미국이 특히 공화당 대통령 재임시 경우라면, 합의를 파기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상당하다. 합의서는 미국의 우방 3개국(영, 프, 독)이 함께 서명한 문서다. 이미 유엔안보리와 유럽연맹은 합의서에 동의하였다. 만약 미 의회의 제동, 혹은 향후 행정부의 고의적 노력은 미국의 위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소련과 중국은 고사하고, 우방이 경제봉쇄에 동참을 계속할지도 의문시 된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신뢰 없는 합의문은 종이쪽에 지나지않는다” 라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었다.

평음을 내며 항공모함을 이륙하는 젯트기의 무력과사나, 전장에서 사지를 잃은 젊은이를 애처롭게 보는 가족의 어두운 눈망울을 TV 화면에서 더는 볼 수 없었으면 한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피그만 침공: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1959년 쿠바 혁명

1959년 1월 1일. 부패한 독재자 바티스타 정부에 등 돌린 쿠바 민중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변호사 출신의, 공산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였던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혁명군 세력이 쿠바의 정권을 잡았다. 1953년부터 시작된 혁명군의 무장 투쟁 끝에 쿠바의 공산혁명이 완성된 날이다.

풀헨시오 바티스타 (Fulgencio Batista)는 1940년 제 9대 쿠바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940년대 초반 쿠바의 경제적 번영기를 이끌기도 했던 인물이다. 1944년 권좌에서 내려온 후 8년간의 공백기 후에 1952년 선거에 재출마했다가 낙선하지만,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쿠데타를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다. 바티스타의 쿠데타는 카스트로가 “추락한 헌법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다.

어쨌거나 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바티스타는,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권력에 기대 부패한 독재자의 본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내기 시작한다. 언론과 대학을 통제하고 회를 장악했으며, 부정 축재로 개인의 재산을 늘려나갔다. 동시에 쿠바 민초들의 삶은 파탄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범죄적이고도 무능한 정권이 문제라면, 외부적으로는 쿠바의 경제를 주무르는 미국 기업의 수탈이 문제였다. 바티스타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독재를 보장해주고, 바티스타는 미국 기업들의 편안한 이권 추구를 보장해주는 관계였다. 1959년

당시 쿠바의 광산, 목장, 정유시설의 80퍼센트 이상, 철도의 50퍼센트, 설당 산업의 40퍼센트는 미국 기업의 소유였다고 한다.*

1959년 혁명 이후 카스트로는, 사회주의적인 사회 경제적 개혁에 착수했다. 가령, 외국(미국) 기업의 자본을 몰수, 국유화했으며, 토지를 재분배하는 한편, 도시 거주민의 주택 소유를 1채로 제한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쿠바의 혁명은 미국에게 커다란 충격을 (그리고 손해를) 가져왔다. 쿠바의 공산주의적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었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복이었던, 1961년 초 케네디 행정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쿠바와의 국교를 단절했다.

1961년 피그스만 침공, 처참한 실패
미국이 외교 관계를 중단하는데서 멈췄으면 적어도 대외적으로 스타일 구기는 일이 없었을 것을... 1961년 4월 4일, 케네디 대통령은 (피그스만 침공 Bay of Pigs Invasion)이라는 군사 작전을 승인하는데, 앞으로 펼쳐질 불행의 돌이킬 수 없는 서막이 된다. 케네디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시절 CIA가 기획한 피그스만 침공은 쿠바 망명자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킨 후 쿠바로 침투시켜 반카스트로 반란을 일으키려던 작전이다. (애초에 미국은 카스트로를 제거하기 위한 군사 작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기에, 쿠바에서 쿠바인에 의해, 쿠바 일반사람들이 동조하는, 현 쿠바정권에

대한 도발처럼 보이는 피그스만 침공을 계획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구상 자체가 돌이켜생각해보면 얼토당토 않은 것이었지만.)

어쨌거나 1961년 4월 15일, 1500 미군의 폭격기 B 26이 쿠바 남해의 피그스만을 공습했다. 이틀 뒤인 4월 17일 1500명의 쿠바 망명자들로 이루어진 2506여명 병력이 쿠바 남쪽의 피그스만에 상륙했다. 그러나 15일의 폭격 이후 이미 쿠바군은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게다가 미국은 늑지대인 피그스만 지역의 지형 특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1500명의 병력 중, 118명은 사망하고 1189명은 쿠바군의 포로가 되었으니 피그스만 침공은 처참하게 실패한 군사작전이였다. 게다가 피그스만 침공은 카스트로 정권의 전복이 아니라, 소련이 쿠바와 결속 쿠바의 “공산주의 노선” 을 분명히 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생포된 포로들은 5300만 달러의 의약품과 식품을 쿠바측에 제공한 후에 풀려날 수 있었다.

사실 피그스만 침공은 케네디의 집권 이전에 계획과 망명자들에 대한 군사훈련까지 CIA 주도하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피그스만 침공 작전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역할은 마지막 단계의 “결재” 뿐이었다. 그렇다해도, 그 최종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작전과 그 실패에 대한 사과를 했고, 왜 바보같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승인했는지를 한탄했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피그스만 침공사건은 왜 간혹 똑똑한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지를 이야기하는 집단사고 (group-think) 이론의 유명한 예가 되었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CIA 수뇌부와 국방부의 최고 브레인들이 모여서 “카스트로를 제거해야 한다” 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으나, 그들의 비슷한 (homogenous) 시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단의 결정 (즉, 피그스만 침공, 쿠바인들에 의한 쿠바 정권 전복 시나리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국 현실성을 망각하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 집단사고 이론이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국정원의 (내국인 사찰이 의심되는) 해킹 의혹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왜 엘리트집단이 모인 국정원이 그모양인지 의심되는 순간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생각났다. 이제 보니 첩보 영화 베를린의 카피는 명언이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참고:

올리버스톤, 피터 커즈닉 지음/ 이광일 역 |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 1), 도서출판 들녘
송기도 | 미국은 왜 쿠바를 끌어안았을까: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월간 인물과 사상) 2015년 4월호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5%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19,000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3주단위,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3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5년 이상의 강의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7.13~8.21
(3주단위,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